

NCKK 신학위원회 교회론 심포지엄
‘교회: 공동의 비전을 향하여’

교회의 본질에 대한 우리의 이해

좌장: 양권석 교수 (본 위원회 위원장, 성공회 대학교)

1차

8월 26일(목) 저녁 7시 30분

발제 1.

“에큐메니칼 교회론의 주요 주제와 종합”

- 박도웅 목사 (본 위원회 부위원장, 배화여자대학교)

2차

8월 27일(금) 저녁 7시 30분

발제 1.

“코로나 19 이후의 교회 - 생태 신학 관점에서”

- 신익상 교수 (본 위원회 위원, 성공회 대학교)

발제 2.

“코로나 19 이후의 교회 - 교회 갱신의 관점에서”

- 조성돈 교수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 발제 후 패널토론과 집담회가 진행됩니다.

전면 비대면 진행  **Zoom 회의** <https://url.kr/wxkq9y> ID: 238 242 5962 PW: ncck1008

NCKK 신학위원회 교회론 심포지엄

‘교회: 공동의 비전을 향하여’

1. 주제: “교회의 본질에 대한 우리의 이해”
2. 취지: 코로나19로 우리 삶과 신앙의 많은 부분이 변화를 겪고 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오랫동안 축적되어온 한국교회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나게 했다. 교회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다지고 이를 바탕으로 교회의 존재의미를 다시 세워 나가야 할 때이다. 먼저 WCC 교회문서 “교회: 공동의 비전을 향하여”를 참고삼아 이에 대한 여럿의 의견을 모으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3. 진행 순서: 좌장 / 양권석 교수 (본 위원회 위원장, 성공회 대학교)
 - 1) 1차 / 8월 26일(목) 저녁 7시 30분, 온라인 줌(ZOOM)
 - 발제 - “에큐메니칼 교회론의 주요 주제와 종합” / 박도웅 목사 (본 위원회 부위원장, 배화여자대학교) (40분)
 - 약정패널(2인) - 조한근 사관(본 위원회 위원, 구세군사관대학원대학교) / 최규희 목사(본회 사무국 여성위원회 간사)
 - 집담회 -
 - 2) 2차 / 8월 27일(금) 저녁 7시 30분, 온라인 줌(ZOOM)
 - 발제 1 - “코로나 19 이후의 교회 - 생태 영성의 관점에서” / 신익상 교수 (본 위원회 위원, 성공회 대학교) (30분)
 - 약정패널(1인) - 김명희 교수(본 위원회 위원, 서강대학교 종교학)
 - 발제 2 - “코로나 19 이후의 교회 - 교회 갱신의 관점에서” / 조성돈 교수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목회와사회 전공) (30분)
 - 약정패널(2인) - 이성훈 목사(본 위원회 위원), 김한나 교수(본 위원회 위원, 성공회대학교)
 - 집담회 -

4. 형식: 완전 비대면(ZOOM)

- 발제 : 30분
- 약정패널 1~2명 : 각 10분 (코멘트, 질문, 생각거리 등 자유롭게)
- 집담회 : 30분 (이야기 마당;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발언의 권리와 의무가 있는 시간)
- 총정리 포함 총 90~120분 이내 진행 원칙
- 실제 진행 예
 - A. 사회자(좌장)의 심포지엄 소개
 - B. 발제자의 30분 발제
 - C. 좌장의 중간 정리 - 함께 생각해볼 생각 거리 던지기
 - D. 약정패널 (코멘트, 질문, 생각거리 등 자유롭게)
 - E. 집담회와 총정리 - 좌장의 인도와 정리

목 차

에큐메니칼 교회론의 주요 주제와 종합	5
박도웅 목사 (본 위원회 부위원장, 배화여자대학교)	

“코로나 19 이후의 교회 - 생태 영성의 관점에서”	6
신익상 교수 (본 위원회 위원, 성공회 대학교)	

“코로나 19 이후의 교회 - 교회 갱신의 관점에서”	
조성돈 교수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목회와사회 전공)	

에큐메니칼 교회론의 주요 주제와 종합

박도웅 목사 (배화여대)

1. 들어가는 말

「교회: 공동의 비전을 향하여」 문서는 세계교회협의회와 신앙과 직제위원회가 세계교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이다. 2012년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열린 신앙과 직제위원회에서 작성되었고, 2013년 세계교회협의회 10차 부산총회의 프로그램 문서로 공식적으로 제출되었다. 이후 세계교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올해 두 권의 보고서¹⁾를 출판하였다. 한국교회는 이 문서에 대하여 공식적, 비공식적 응답을 제출하지 않았다. 때문에 이 문서를 함께 읽고 한국교회 상황에서 신학적으로 응답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 할 수 있다.

지난 해 4월부터 시작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신학위원회의 「비전문서」 읽기 프로젝트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 교회의 본질을 묻는 기독교 신앙과 신학의 원론적인 자기성찰에서 출발하였다. 예상하지 못한 사건과 상황이 교회의 입장을 정리하기도 전에, 급속하게 변화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현상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책을 제시하는 것도 교회의 책무임은 분명하지만 변하지 않는 진리인 기독교 신앙과 그 신앙을 공유하고 실천하는 공동체인 교회의 본래적인 자리를 발견하고 확인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회복한다는 차원에서 필요한 작업이라고 본다. 그러한 필요성과 문제의식에서 현대 에큐메니칼 운동이 정리한 최근 문서인 「교회: 공동의 비전을 향하여」 강독과 해석, 적용에 대한 논의는 교회공동체의 관점에서 적절하고 유익한 일이 될 것이다.

발표자는 이 문서의 에큐메니칼 신학사적 의의와 함께 교회적 실천의 관점에서 읽고자 한다. 단순히 에큐메니칼 운동이 추구하는 교회일치와 연대의 관점에서 이 문서를 읽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작성된 에큐메니칼 교회론 문서들과의 연결성 혹은 지속성의 차원에서 읽고자 한다. 이전의 문서와 함께 읽을 때 비전문서의 문자적 의미와 함께 역사적 의미와 확장성이 분명하게 보일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에큐메니칼 교회론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고찰함으로써 현대교회가 직면한 교회론적 정체성의 물음에 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본 발표는 지난 백

1) Ed. Ellen Wondra, Stephanie Dietrich, Ani Ghazaryan Drissi, *Churches Respond To The Church: Towards A Common Vision Vol. 1,2*, 2021, WCC Publication.

년 간의 에큐메니칼 운동과 신학 속에서 발표된 주요 문서들을 중심으로 주요 주제들을 살피고 현대 세계 안에서 교회의 자리와 실천적 방향을 종합하고자 한다.

2. 에큐메니칼 교회론의 주요 주제와 역사적 발전

1948년 창립총회를 통하여 본격적으로 시작한 현대 에큐메니칼 운동은 출발점에서부터 선교와 교회의 일치에 목표를 하였다. 역사적으로 1700년대 유럽과 미주의 교회들이 경험하고 확장시킨 복음주의 부흥운동은 1800년대 복음주의 선교운동의 토대가 되었고, 제국주의적 식민지 확보 경쟁과 더불어 기독교가 세계로 전파되는 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선교 과정에서 노정된 심각한 교파간 경쟁과 갈등은 역설적으로 에큐메니칼 운동의 필요성을 불러 일으켰다. 에큐메니칼 운동은 교회의 분열과 대립을 극복하고 연합과 일치를 추구한다. 1910년 에딘버러 세계선교대회는 그러한 문제의식과 해결을 모색하고자 하는 신앙적 노력이었다.

1) 교회 일치

에딘버러의 공감은 신앙과 직제 운동으로 구체화되었고, 1927년 시작한 신앙과 직제 운동은 지금까지 교회의 일치와 본질, 기능, 세례와 성만찬, 교역 등 교회론의 중심적인 주제들을 다루며 발전해왔다. 1927년,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신앙과 직제 세계대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신앙과 직제위원회 최종보고서는 “1. 일치로의 부름, 2. 세상을 위한 교회의 메시지-복음, 3. 교회의 본성, 4. 교회의 공동 신앙고백, 5. 교회의 교역, 6. 성례전의 소주제 아래 56개의 조항”²⁾으로 구성되어 있다. 100여 년 전에 이미 현대 에큐메니칼 교회론이 다루고 있는 주요 주제들을 논의한 것을 볼 수 있다. 1장 첫 조항은 다음과 같다.

5. 하나님은 일치를 원하신다. 이 회의에 우리가 참여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의지를 고정시키고자 하는 우리의 갈망을 증거하는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들의 분열이 시작된 것을 정당화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분열의 지속됨에 슬퍼하며, 지금 이 후로 통회와 믿음으로 우리의 무너진 벽들을 세우는 데에 노력해야만 한다.³⁾

이는 선교지에서의 교파 경쟁을 지양하고 연대와 일치를 선포했던 에딘버러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2장은 교회의 메시지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드러난 복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3장에서 “교회의 본성”이라는 제목으로 교회에 대한 이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18. 교회는 하나님의 택하신 도구이다. 이 도구로써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하여 인간들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화해시키고, 그들의 의지를 주님께 복종케 하며, 그들을 은혜의 방편들로 성화시키며, 그들을 사랑과 섬김 안에서 연합시킴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고, 그의 나라가 영광 중에 올 때까지 지상에서 그의 통치를 확장시키는 일에 함께 일하는 일꾼이 되게 한다.⁴⁾

2) 루카스 피셔 역음, 이형기 역, 『에큐메니칼 신학의 발전사1』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1998), 33-49.

3) 위의 책, 34.

4) 위의 책, 38.

3장은 교회의 특징들과 현존하는 교회들의 차이, 교회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뜻을 담고 있다. 4장은 교회의 공동 신앙고백을 다루고 있는데, 성경과 니케아 신조, 사도신경에 담긴 신앙고백을 교회의 영적인 신앙으로 명기하면서, 이러한 기준들이 개인의 신앙 안에서 충분히 역사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내적이고 개인적인 연합이 함께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공동의 신앙고백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신앙의 인격적 체험을 인정하는 대목이다.

1937년 열린 에딘버러 제2차 대회 최종보고서는 첫 장에 해당하는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강조하며 시작하고 있다. 2장의 소제목들을 소개하면, “(i) 은혜의 의미 (ii) 칭의와 성화 (iii)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반응 (iv) 교회와 은혜 (v) 은혜, 말씀 설교와 성례전 (vi) 오직 은혜”이다.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소제목의 3장은 (i) 하나님의 말씀 (ii) 성경과 전통에 이어 (iii) 교회 : 우리의 공동의 신앙을 다루고 있다.

27. 우리는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데 있어서 하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뜻이 예수 그리스도, 특히 그의 부활을 통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주님의 주변으로 제자들을 모으심을 통하여, 그리고 성령의 오심을 통하여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⁵⁾

3장에 에큐메니칼 교회론의 주요 주제들이 등장하는데 이는 현대 에큐메니칼 운동이 여전히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들이다. 공동의 신앙고백에 이어 (iv) 교회 : 일치와 차이점 (v)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vi) 교회의 기능 (vii) 예언의 은사와 말씀 교역의 교역 (viii)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와 우리의 분열이다. 현재 시점에서 동의할 수밖에 없지만 당시 에큐메니칼 신학의 보았던 교회의 분열에 대한 관점이 나타나 있다.

49. 그러나 우리는 모든 대륙에서 기독교 세계의 분열은 그리스도의 몸의 일치를 나타내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진심으로 이러한 모습에 개탄한다. 그리고 우리는 본 회의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러한 회개를 불러일으켜서 교회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그 메시지를 듣는 남녀 평신도들도 기독교적 일치의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명백하다는 것을 배우며, 기독교적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긴급한 부르심으로 이 문제를 다루기를 원한다.⁶⁾

신앙과 직제 2차 대회는 교회 일치와 관련하여 협력적 행동과 성만찬 교류, 유기체적 연합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이 대회의 결론은 교회의 유기체적 연합을 목표로 하지만 현실을 인정하는 연맹적(federal) 연합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논의는 1948년 암스텔담에서 열린 세계교회협의회 창립총회의 교회론이 되었다. 즉, 교회는 하나이지만 그 안에 가톨릭과 개신교회, 정교회, 자유교회가 각각 존재하는 현실을 인정하고 교회들 간에 연대와 협력의 관계를 맺는 교회론을 수용한 것이다.⁷⁾

5) 위의 책, 57.

6) 위의 책, 63.

7) 송인설, 『에큐메니칼 교회론』, (경기도 광주 : 서울장신대 출판부, 2014), 167.

두 번의 신앙과 직제 세계대회를 통하여 기초를 다진 에큐메니칼 교회론은 세계교회협의회 창립과 함께 구체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세계교회협의회는 출발은 에큐메니칼 운동의 지평에서 새로운 교회론을 논의하는 장이 되었다. 윌리엄즈(Colin Williams)는 세계교회협의회 창립과 함께 시작된 교회론에 대한 논의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주후 5세기에는 ‘기독교론’에, 중세기에는 ‘구속론’과 ‘성례전’에 신학적 비중을 뒀으로써 교회론이 소외되었던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20세기 신학에 의해 비로소 ‘신학적 문제로서의 교회론’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⁸⁾

세계교회협의회 창립총회는 네 개의 분과로 조직되었는데, 각 분과는 다음과 같은 주제를 논의하였다. 1.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교회 2.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교회의 증언 3. 교회와 사회의 무질서 4. 교회와 국제 질서. 주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섭리와 분리될 수 없다. 하나님의 섭리 혹은 계획안에서 세워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증언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동시에 세계와 사회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다. 1분과 보고서에 교회에 관한 중요한 관찰이 등장한다.

10. 우리는 합의를 본 사항들을 교회의 본질(nature)과 교회의 선교(mission)라는 두 항목으로 나누었는데, 그 합의사항들을 좀 더 면밀히 조사하는 가운데 몇 가지 불일치도 드러났다.

11. 우리 모두는 교회란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는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행동이 교회를 탄생시켰음을 믿는다. 우리는 교회란 성령의 임재와 권능을 통하여 역사를 따라 유유히 계속됨을 믿는다.⁹⁾

이는 2차 세계대전 직후의 시대상을 반영하는데, 교회일치라는 실천적 목표와 함께 무너진 세계의 재건에 참여하는 교회의 책임을 강조한 것이다. 보고서는 계속하여 교회의 본질에 대한 합의를 설명하고 있다.

16.2.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을 그분의 거룩함 가운데서 예배하며,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이 있음을 믿는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의 완성을 위해 하나님에 의해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로 채워진다. 교회는 신앙과 사랑으로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능력에 의해, 그리고 그분이 보이신 모범에 따라 전 인류를 섬기며 살도록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교회는 신앙에 의해 이미 부분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함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영광과 권능의 온전함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완성을 기다리고 있는 용서받은 죄인들로 구성된다.¹⁰⁾

보고서는 계속하여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교회의 증언을 밝히고 있다. 이 부분에서는 교회를 통

8) Colin Williams, The Church, 10. 은준관, 『신학적 교회론』 (서울: 한울출판사, 2006), 265. 재인용.

9) 루카스 피셔 역음, 『에큐메니칼 신학의 발전사1』, 102.

10) 위의 책, 103.

한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들 상호간의 화해,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시키는 종말적 완성을 기술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분명하게 드러나 명시적 목적을 제시하는데, 1) 하나님의 목적에 관하여 우리가 알아야 될 모든 것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 계시되었다. 2) 복음을 세계 도처에 전파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3) 하나님께서는 그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인간의 순종을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신다.¹¹⁾

1952년 룬드에서 열린 제3차 신앙과 직제대회는 그동안 가톨릭교회와 정교회, 그리고 개신교회의 다양한 신학적 경향과 직제들을 인정하는 비교교회론을 넘어서 교회 안에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주어진 일치”(a God-given unity)가 있다고 선언하였다.¹²⁾ 3차 신앙과 직제 대회의 보고서를 보자.

2. 우리는 교회의 본질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개념들과 우리가 간직해온 전통들을 비교하는 데서 그친다면 일치를 향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깨달았다. 그리고 또 하나 알게 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보다 더 가까이 가려고 할수록 우리는 서로 가까워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분열의 배후로 뚫고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 사이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연합의 신비를 보다 깊고 풍요롭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¹³⁾

교회의 일치를 이루는 방법은 교회들 간의 논의와 협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발견이다. 1954년 에반스톤에서 열린 세계교회협의회 2차 총회와 함께 열린 신앙과 직제대회는 앞선 룬드 회의의 관점을 확인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하나됨과 교회들 간의 불일치”라는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보고서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본질적으로 하나되게 하는 사역이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이 땅의 순례길에 있는 교회들의 하나됨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현실 교회의 하나됨을 부분적으로 실현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하는 교회의 분열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회개를 제안하고 있다.

21. 최소한 우리 모두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분열에 대해 생각한다는 점에서 일치되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는 회개가 아니라 비록 다른 사람들은 동참해 주기를 꺼려할 때라도, 또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우리 자신 스스로가 하는 회개가 되어야 한다.¹⁴⁾

1961년 뉴델리에서 열린 세계교회협의회 3차 총회는 국제선교위원회가 정식으로 합류한 총회였다. 이 총회에서 신앙과 직제위원회는 교회의 “주어진 일치”(a God-given unity)를 “가시적 일치”로 표현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뉴델리 총회는 교회의 가시적 일치를 가능하게 하는 근원은 삼위일체의 사랑이라고 설명하였다.¹⁵⁾

11) 위의 책, 108-109.

12) 송인설, 『에큐메니칼 교회론』, 168.

13) 루카스 피셔 엮음, 『에큐메니칼 신학의 발전사1』, 112-113.

14) 위의 책, 185.

15) 송인설, 『에큐메니칼 교회론』, 169.

1.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이 성령의 일치 안에서 교류하는 사랑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든 인류와 창조세계를 위해 의도하신 일치의 원천이자 목표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치를 공유하고 있는 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계시며 그가 만물들을 보전하고 계심을 믿고 있다. 교회는 아버지께 의해 몸의 머리가 되신 그분 안에서만 그 참된 일치를 소유하게 된다.¹⁶⁾

2.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인 동시에 교회에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일치가 가시화되고 있는 중이라고 믿는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며, 그를 주님이시요 구세주로 고백하는 각 장소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에 의해 완전히 헌신하는 하나님의 교제로 인도되어서 하나의 사도적 신앙을 갖고, 하나의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의 떡을 떼며, 공동의 기도예 참여하며, 그리고 협력하는 삶을 소유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와 봉사를 하기 때문이며, 동시에 모든 장소 모든 시대에 교역과 교회 회원권이 모든 사람들에게 의해 받아들여지고, 또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일을 위하여 상황이 요구하는 대로 함께 행동하고 말하는 방식으로 전체 기독교적 교제와 일치되어 있기 때문이다.¹⁷⁾

2) 선교적 교회

교회의 본질에 대한 동의와 그에 기초한 교회의 일치에 중점을 두었던 에큐메니칼 교회론은 1950년대를 지나며 선교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는데, 그 계기가 된 것은 1952년 빌링겐 국제선교협의회(IMC) 대회에서 주창된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 개념이었다. 후켄다이크를 중심으로 당시 서구교회의 교회 중심 선교를 비판하며 삼위일체 하나님을 선교의 주체로 고백하는 신학적 관점이 공감대를 얻은 것이다. 이형기 교수는 “하나님의 선교 개념은 내용상으로 바르트에게서 기원했다. 1932년 바르트는 브란덴부르크 선교대회에서 선교는 하나님 자신의 활동이라는 글을 발표했다”고 설명하였다.¹⁸⁾

에큐메니칼 교회론은 하나님의 선교 개념을 기초로 하여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강조하는 교회론을 발전시키게 된다. 교회에 주어진 전적인 선교적 과제를 강조하는 빌링겐 선교대회의 보고서를 보자.

III. 전적인 선교적 과제. 하나님께서는 땅 끝, 모든 나라들, 그리고 종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 교회를 보내신다. 1) 교회는 사람이 사는 세상의 모든 지역으로 보내진다. 어느 장소도 너무 멀거나 너무 가까지 않다.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그룹들은 인근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절로 보내진다. ... 2) 교회는 인류의 모든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공동체들에게 보내지는데 가까운 공동체들과 먼 공동체들 모두에게 보내진다. ... 그리스도께 신실함은 교회로 하여금 자신이 [섬기도록] 보내진 사람들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삶을 이해할 것을 요구한다. 3) 교회는 모든 순간과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선포하기 위해 보내진다. 이것은 교

16) 루카스 피셔 엮음, 『에큐메니칼 신학의 발전사1』, 193.

17) 위의 책, 193-194.

18) 이형기, 『하나님의 선교』 (서울: 한국학술정보, 2008), 49.

회의 선교가 교회로 하여금 우리 시대의 사건들 앞에서 표류하거나 도망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¹⁹⁾

당시 국제선교위원회 총무였던 레슬리 뉴비긴은 세계교회협의회와 결합하는 의의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세계교회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교회들에게 이것(통합)은 갱신과 일치 추구를 하는 것 못지않게 선교적 과제가 교회의 삶에 있어서 중심적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온 땅에 복음이 증거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헌신하지 않는 운동은 에큐메니칼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자격이 없는 것이다.²⁰⁾

교회에 주어진 선교의 사명을 강조하는 교회론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두 가지 입장이 나타났다. 하나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세상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입장을 보여주는 “하나님-교회-세상” 구도이고 다른 하나는 보다 급진적인 입장으로 하나님이 세상에서 행하시는 구원 활동에 교회가 참여한다는 “하나님-세상-교회”의 구도였다. 1960년대 에큐메니칼 운동은 후자를 선택하였다. 은준관 교수는 “하나님-세상-교회” 구도를 가리켜 “1963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1968년 읍살라 세계교회협의회 총회를 중심으로 태동된 새로운 신학적 에토스요, 패러다임”으로 설명하였다.²¹⁾ 그는 “지난날의 방법론은 언제나 교회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해석해왔지만 ‘하나님-세상-교회’ 구조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교회를 해석하는 새로운 방법론을 전제로 해석한다”는 가톨릭 신학자 리차드 맥브리엔의 설명을 소개하고 있다.²²⁾

교회의 선교를 강조하는 변화와 함께 교회의 일치를 추구하는 신학적 논의는 꾸준히 계속되었다. 1975년 WCC 나이로비 총회에서 강조된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를 발전시킨 신앙과 직제위원회는 1978년 인도 벵갈로 회의에서 교회의 가시적 일치에 대하여 숙고하였다. 이 회의에서 가시적 일치를 위하여 충족되어야 할 세 가지 기본적인 요건이 합의되었다. 세 가지 요건은 1) 사도적 신앙에 대한 공동의 이해, 2) 세례, 성만찬, 그리고 직제에 대한 충분한 상호 인정, 3) 가르치고 결정을 내리는 일에 있어서 공동의 방법들에 대한 일치였다.²³⁾ 벵갈로 회의의 논의가 발전되어 1982년 리마 신앙과 직제위원회는 『세례, 성만찬, 직제』(*Baptism, Eucharist and Ministry*, 1982, 이하 BEM문서)로 정리하였다. BEM 문서는 1927년 신앙과 직제운동의 출범 이후 오십년 동안 진행된 에큐메니칼 신학의 열매라 할 수 있다. 이는 16세기 교회 분열의 근본적인 원인이었던 “성만찬과 직제에 대한 다양한 신학적 난제들과 실천적 어려움들을 명

19) 마이클 키네몬, 안토니오 키레오폴로스 편, 이형기 외 역, 『에큐메니칼 운동』 (서울: 한들출판사, 2013), 642-643.

20) 위의 책, 649. 뉴비긴은 세계선교에 대한 교회의 책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다. 그는 선교를 “교회의 본질적 요소”로 주장하면서, “범세계적 선교를 그 공동체의 핵심에 속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만이 자기 본질에 충실하는 길이다. ... 교회가 선교적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교회의 이차적 본질 뿐 아니라 일차적 본질까지 상실하게 된다고 경고하는 소리를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다. 하지만 이것은 엄연한 사실이다.”(레슬리 뉴비긴, 홍병룡 역, 『교회란 무엇인가?』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17), 175.

21) 은준관, 『신학적 교회론』, 421. 은준관은 이 구조가 전 세계 교회의 비전을 ‘세계 긍정’과 ‘선교 의식’으로 몰고 간 새로운 힘으로서 크게 작용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22) 위의 책, 421-422.

23) 권터 가스만 역, 이형기 역, 『에큐메니칼 신학의 발전사2』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8), 61.

쾌하게 해결하고 교회의 가치적 일치를 지향하는” 신앙과 직제 운동의 결실이었다.²⁴⁾ BEM 문서는 이 작업의 의의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이 리마 본문은 신앙과 직제위원회가 알아내고 규정해온 중요한 신학적 일치점을 표현하고 있다. 세례, 성만찬, 직제에 대한 교리와 관습에 있어서 교회들이 얼마나 크게 서로 다른가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여기에 기술된 광범위한 일치 기준들의 중요성의 진가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²⁵⁾

리마 문서는 분명히 세계 에큐메니칼 운동에서 기념비가 될 만한 성과였고 교회의 가치적 일치를 위한 중요한 기초라 할 수 있다. 이 문서를 통하여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은 세례의 의미, 세례와 신앙, 세례의 실행에 대한 합의를 발견할 수 있고, 성만찬의 의미와 거행에 대한 이해를 공유할 수 있다. 또한 직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은 소명, 교회와 안수례, 직제의 형태들, 사도적 전통, 교직 안수와 안수받은 직제에 대한 상호인정을 향하여 진전된 논의를 접할 수 있다.²⁶⁾

3) 협의회적 교회론

선교적 교회론의 등장과 함께 1975년 세계교회협의회 5차 나이로비총회에서 제기된 “협의회적 교회론”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뉴델리에서 열린 세계교회협의회 3차 총회(1961)에서 동방정 교회가 가입하고, 1968년 로마 가톨릭교회가 신앙과 직제위원회 회원으로 참여하면서 에큐메니칼 신학의 교회론은 더 이상 유기체적 일치를 추구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였다. 1973년 신앙과 직제위원회 살라망카 회의는 협의회적 교제의 개념을 논의하면서 협의회적 교제와 유기적 연합의 관계를 분명하게 하고자 하였다.²⁷⁾

하나의 교회는 그들 자신들이 참으로 연합되어 있는 지역교회들의 협의적 교제로 향상될 수 있다. 이러한 협의회적 교제 안에서 각각의 지역 교회들은 다른 교회들과 교제하면서 사도성의 충만을 소유하고, 동일한 사도적 신앙을 증거하며,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교회들을 그리스도의 같은 교회에 속해 있고 같은 영에 의해 인도 받고 있는 교회로 인정한다. 뉴델리 총회가 지적하는 대로, 그들은 함께 연결되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동일한 세례를 받았고, 동일한 성만찬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은 각각의 다른 교회의 구성원들과 목회자들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세상에 대한 선포와 봉사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려는 그들의 공동의 헌신에 있어서 하나이다. 결과적으로 각각의 교회는 그들의 공동의 소명의 성취를 위해 필요로

24) 이형기, 『BEM 문서 - 세례 성만찬 직제』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3), 8.

25) 위의 책, 17.

26) 이 책에서 이형기 교수는 BEM 문서의 각 항목마다 해설을 달았고, 부록으로 로마 가톨릭교회와 종교개혁자 루터, 쾰링거, 칼빈의 성만찬 이해를 설명하고 있다. 그는 BEM 문서의 신학적 의의를 20세기 교회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말씀의 신학을 강조한 이래 개신교의 교회 역사는 점차 성만찬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무시하는 방향으로 흘러왔다는 사실을 의심할 수 없다. 주지주의적이고 스콜라주의적인 17세기 개신교 정통주의, 개인의 경험을 강조했던 18세기의 계몽주의, 독일의 자유주의적 개신교로 특징지어진 19세기의 기독교는 확실히 성만찬을 무시해 왔다”고 지적하면서 마이클 테일러의 저서를 인용하여 “성만찬 예배의 회복을 통한 교회의 공동체성 회복”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위의 책, 75-135.

27) 권터 가스만 엮음, 『에큐메니칼 신학의 발전사2』, 121.

될 때마다 협의회적 모임들에서 표현된 자매교회들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유지하고자 한다.²⁸⁾

보고서는 협의회주의가 14,15세기 서구교회와 19세기 러시아교회에서 강력한 힘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 교회 상황에서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 교회 회의들은 그러한 협의회적 교제의 성격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차이와 분리의 간극을 극복하기 위하여 협의회적 교회론은 유기적 연합의 실제적인 의미의 결핍을 보완하고 보다 높은 일치로 나아갈 수 있는 자극이 될 것을 기대하였다.

협의회적 교제는 여러 교파들(하나의 교회의 여러 표현들)의 해당 대표들을 상호 받아들이는 것을 필요로 한다. 교회의 구성원들이 서로서에게, 그리고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것은 교회의 참본질에 기초하는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중재하면서 세상을 대표하는 것과 같다. 이러한 형태는 교회 안에서 다양한 지역성들과 차원들이 서로서에게 대표되고 전통의 살아 있는 흐름을 받아들이고 전수하는 모습들로 더욱 구체화된다.²⁹⁾

세계교회협의회 제5차 나이로비 총회 보고서는 협의회적 교제를 삼위일체 개념과 연결하여 기술하고 있다.

5. 진정한 협의회적 교제란 교회의 일치를 전제로 한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일치를 여러 방법으로 묘사한다. 그것이 아직 우리 모두의 언어로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우리 모임에서 주어진 하나의 묘사는 다음과 같다. ‘진정한 협의회성이란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심이 교회의 삶 속에 반사되는 것이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제자들이 성부와 성자가 하나 되심처럼 하나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신 그와 같은 일치이다.³⁰⁾

7.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양성을 허용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열망하는 것은 교회의 일치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인간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교회는 도래하고 있는 인류 일치의 징표가 되기 때문에, 교회는 각 나라와 각 문화, 모든 시대와 모든 장소,, 그리고 모든 종류의 능력과 무능력의 남성들과 여성들에게 개방되어 있다.³¹⁾

결과적으로 협의회적 교회론은 지역 내 교회들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상호 협력을 통하여 세상을 향한 공동의 선포와 복음 실천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었지만 구체적인 대안으로 자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협의회라는 용어 자체가 교회를 대신하거나 대체할 수 없었고, 유기적 일치와 가시적 일치의 영역에서 구체적인 기구적 형태를 가지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인다.

28) 위의 책, 121-2.

29) 위의 책, 129.

30) 마이클 키네몬, 안토니오 키레오폴로스 편, 『에큐메니칼 운동』, 253.

31) 위의 책, 254.

4) 공동체 교회론

신앙과 직제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에큐메니칼 신학에서 빠트릴 수 없는 중요한 문서는 1993년 산티아고 제5차 신앙과 직제 대회에 제출된 네 개의 문서 중 하나인 『하나의 신앙고백』이다. 이 문서는 리마 문서에 이어 세계교회가 공동으로 고백하는 교회에 대한 사도적 신앙을 보여주고 있다.³²⁾ 이 문서는 앞서 발표한 리마문서가 교회의 가시적 일치를 위한 세 가지 요소³³⁾ 중 두 번째 요소에 기여하고 있다고 보면서, 교회들이 첫 번째 요소인 사도적 신앙의 공동고백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문서는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조를 공동의 고백으로 제시하고 해설하였다.

이 문서는 3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1부,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2부 우리는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3부 우리는 성령을 믿사오매”이다. 3부에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함께 교회와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 이 문서는 교회를 해설하면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에 대한 고백의 성격을 확인하였다.³⁴⁾ 문서는 “오늘날을 위한 해석”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고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상호간에 교제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설명하고 있다.³⁵⁾ 이어지는 설명을 보자.

이 교회의 각 구성원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죄사함을 위한 하나의 세례를 통해서 이러한 교제에로 돌입한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만찬에 의해서 양육받는 삶을 성령의 능력으로 꾸준히 영위해 나가기로 갈망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이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한 사랑의 교제 안에서 복음증거와 복음에 대한 섬김을 위해서 성별되었다.³⁶⁾

이러한 확언은 교회를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로 이해함으로 이후 에큐메니칼 교회론이 공동체 교회론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³⁷⁾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성령 안에 있는 성도들의 교제,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및 사도적 교회”라는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³⁸⁾ 이 공동체에 속한 이들은 사도적 신앙에 순종하면서 말씀과 성례에 의해 함께 모이는 사람들로 개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교회는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의 식탁에 초대받아 예배와 봉사로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의 공동체”³⁹⁾이며, “성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의 참된 교제 안에 있고, 동일한 하나님의 선물을 나눔으로써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⁴⁰⁾ 사람들이다. 문서는 그렇게 함께 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라는 사실을 해설한다.⁴¹⁾

32) 이형기, 『하나의 신앙고백』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6)

33) 위의 책, 13. 여기에서 문서는 세 가지 요소를 1) 사도적 신앙의 공동고백, 2) 세례, 성만찬, 직제에 대한 상호인정, 3) 의사결정과 권위있는 가르침, 그리고 증거와 봉사를 위한 공동의 기구적 구조라고 설명하고 있다.

34) 위의 책, 119-130.

35) 위의 책, 125.

36) 위의 책.

37) 송인설, 『에큐메니칼 교회론』, 187.

38) 이형기, 『하나의 신앙고백』, 124-130.

39) 위의 책, 125.

40) 위의 책, 126.

41) 위의 책, 128-130.

리마 문서와 『하나의 신앙고백』은 세계교회협의회와 신앙과 직제위원회가 에큐메니칼 교회론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근본적으로 중요한 관점을 정립하였다. 두 문서는 하나님의 코이노니아가 교회의 기원이며,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라는 교회의 본질을 밝혀주었고,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선교적 사명을 함께 하는 것이라는 점을 밝혀주었다.

지금까지 현대 에큐메니칼 운동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진 교회론의 중심주제들을 살폈다. 신앙과 직제위원회의 논의를 중심으로 하는 에큐메니칼 교회론은 교회일치와 선교적 교회론, 협의회적 교회론과 공동체 교회론으로 발전해왔다고 할 수 있다. 각각의 주제들은 시기에 따라 강조되었을 뿐 배제된 것은 아니다. 은준관 교수는 에큐메니칼 교회론의 변화를 세 시기로 구분하면서 1기는 교회일치, 2기는 선교에 대한 새로운 논의, 3기는 하나님의 선교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고 보았고,⁴²⁾ 이형기 교수는 에큐메니칼 운동사에 나타난 교회론의 패러다임 전환을 1) 하나의 교회를 추구하는 시기, 2) 가시적 일치를 추구하는 시기, 3) 코이노니아 교회를 추구하는 시기, 4) 교회론과 사회윤리가 합류하는 시기로 구분하고 있다.⁴³⁾ 이러한 구분은 2013년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현대 에큐메니칼 교회론의 종합이라 할 수 있는 비전문서가 반영되지 않았다.

3. 현대 에큐메니칼 교회론 - 「비전문서」를 중심으로

신앙과 직제위원회를 통하여 발전해온 에큐메니칼 교회론은 21세기로 넘어오는 전환기에 두 건의 중요한 교회론 연구문서를 발표하였다. 「교회의 본질과 목적」(1998)과 「교회의 본질과 선교: 공동선언문을 향한 기초문서」(2006)⁴⁴⁾이다. 본고에서 결론적으로 다루게 될 「교회: 공동의 비전을 향하여」(이하 비전문서)에 앞서 작성된 두 문서의 내용과 의의, 성격을 먼저 살펴보자.

1) 「교회의 본질과 목적」

이 문서는 예비연구의 성격으로 작성되어, 2006년 WCC 포르토 알레그레 총회에 제출된 「교회의 본질과 선교」의 기초가 되었다. 「교회의 본질과 선교」에 앞서 발표된 「교회의 본질과 목적」을 떠나는 목적에 대하여 신앙과 직제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오늘의 교회가 아직 일치하지 않은 부분들이 남아 있다는 것을 증언하면서 교회의 본질과 목적에 대하여 함께 말할 수 있는 표현을 제공한다.⁴⁵⁾

「교회의 본질과 목적」의 목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I.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회”에서 A. 교회의 본질과 B.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밝히고 있다. 이어지는 “II. 역사 속의 교회”는 교회사적으로 A. 도상에 있는 교회와 B. 하나님의 구상의 표징과 도구로서의 교회를 설명하고 있다. “III. 코이노니아로서의 교회 (성만찬)”은 성례전 가운데 성만찬에 대한 신학적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데, A. 실재이면서 아직 충분히 실재가 되지 않은 성만찬, B. 성만찬과 다양성, C. 개체 교회의 성만찬으로서의 교회로 이루어져 있다. “IV. 성만찬의 생활”은 성만찬이 신자의

42) 은준관, 『신학적 교회론』, 266-7.

43) 이형기, 『세계교회협의회와 신학』(경기도 : 북코리아, 2013), 246-8.

44) NCKK, 이형기 송인설 공역, 『신앙과 직제와 삶과 봉사의 합류』(2009), 339-405.

45) Faith and Order Paper no. 181, *The Nature and Purpose of the Church*, Geneva: WCC Publication, 1998), 7.

삶에 주는 의미를 다루면서 A. 사도적 신앙, B. 세례, C. 성례전, D. 사역, E. 감독직: 공동체적, 개인적, 집단지도체제적, F. 협의회성과 수위성의 항목으로 기술하고 있다. 결론에 해당하는 마지막 두 장은 “V. 세상 안에서 그리고 세상을 위한 봉사”와 “VI. 부르심을 따라서: 일치를 향한 이해에서 상호 이해로”로 이루어져 있다.

목차에 따라 문서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1장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창조물로 정의하면서 교회는 자기 자신에 의해서,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회로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약성서의 전통을 반영한다. 그리스도의 몸과 성령의 전으로서의 교회는 신약성서의 전통을 반영하고 있다. 1장의 B.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는 인류와 모든 창조물들을 그리스도의 성만찬으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언급하고 이어서 교회는 선교를 위한 존재임을 밝히고 있다.⁴⁶⁾ 2장은 역사적으로 도상에 있는 교회의 특징을 서술하고 있다. 이 도상에서 교회는 “단일성과 거룩성, 보편성과 사도성”을 기초로 하고 있다.⁴⁷⁾ 이러한 기초를 가진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표지이며 도구이다.⁴⁸⁾ 3장은 교제로서의 교회를 설명하고 있다. 교회는 실재하나 아직 충분히 인식되지 않은 하나님의 코이노니아이다. 교회와 인류, 창조물들은 다양성 속에 일치를 추구하고 구현해야 한다. 그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이 교제인 것이다. 코이노니아와 연결되어 제시된 것은 지역교회의 교제이다. 지역(local)교회라는 표현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데, 한국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개교회의 의미와 특정한 지역의 감독(주교)의 관구에 속한 교회들을 통칭하는 뜻을 갖기도 한다. 이 교회들은 성서와 세례, 성례전과 일반적인 사역의 영역에서 사도성과 보편성이라는 근본적으로 일관되고 조화로운 특징을 보여준다.⁴⁹⁾ 4장은 성만찬의 생활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데, 이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도적 신앙과 세례, 성례전과 사역을 기술하고 있다. 마지막 장에서 교회는 세상 안에서 세상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는 자신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⁵⁰⁾

앞서 밝힌 것처럼 이 문서는 교회의 선교적 본질을 규명하기 위한 예비문서의 성격을 가지고 작성되었고, 2006년 세계교회협의회 포르토 알레그레 9차 총회에 제출된 「교회의 본질과 선교: 공동선언문을 향한 기초문서」로 종합되었다.

2) 「교회의 본질과 선교」

이 문서는 현대 에큐메니칼 교회론의 역사적 주제들과 논의들을 종합하는 탁월한 문서로 평가받고 있다.⁵¹⁾ 신앙과 직제위원회는 이 문서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교회의 본질과 선교에 대하여 교회들이 함께 말할 수 있는 바를 표현하고, 이와 같은 합의 안에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다른 문제들을 얼마나 극복할 수 있을지를 탐구하는데 있다.”⁵²⁾

46) 위의 책, 15.

47) 위의 책, 18-9.

48) 위의 책, 21-2.

49) 위의 책, 32.

50) 위의 책, 56.

51) 송인설, 『에큐메니칼 교회론』, 190.

52) 위의 책, 246.

문서의 목차는 예비연구의 성격을 가진 이전 문서 「교회의 본질과 목적」의 목차와 큰 틀에서 유사하지만 세부적으로 상세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다. “I.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회”는 A. 교회의 본성에서 (I)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서 교회 : 말씀과 성령의 피조물 (II) 성서적 통찰들 (a)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 (b)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c) 성령의 전으로서의 교회 (d) 코이노니아 혹은 교제로서의 교회 B. 교회의 선교 C. 이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의 징표와 도구로서 교회로 구성되어 있다. “II. 역사 속의 교회”은 이전 문서에 III장의 내용을 결합하여 A. 도상에 있는 교회 B. 그리스도 안에 있으나, 아직 충만한 코이노니아는 아닌 교회 C. 코이노니아와 다양성 D. 지역 교회들의 코이노니아로서 교회로 구성하였고, “III. 세상 안에서 그리고 세상을 위한 코이노니아의 삶”은 성례전과 교회 구조와 직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논의를 담고 있다. A. 사도적 신앙 B. 세례 C. 성만찬 D. 모든 믿는 사람들의 교역 E. 안수례받은 사람들의 교역 F. 감독직:개인적, 공동체적, 집단지도체제적 F-1 개인적 F-2 공동체적 F-3 집단지도체제적 G. 협의회성과 수위권 H. 권위. 마지막 장은 “IV. 이 세상 안에서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결론과 연결되고 있다. 따로 기술된 “결론”에서는 교회의 본질이 선교라는 사실을 다시 밝히고 있다.

먼저 교회의 본질과 선교를 연결하는 성서적 통찰을 제공하고 있다.

15. 교회의 본질과 선교에 관련된 많은 통찰은, 비록 성경이 체계적인 교회론을 제공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 안에 현존한다. 이 문서를 지배하는 성경적 이해는 성경이 규범적이고, 따라서 교회의 본질과 선교를 이해하기 위한 유일무이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공동의 확신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후의 신학적 성찰은 항상 성경의 가르침을 다루고 또 이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⁵³⁾

이 문서는 교회의 본질을 다루면서 이전 문서와 달리 “코이노니아로서의 교회”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회” 부분으로 이동하였다. 1장에 추가된 부분이 B. 교회의 선교이다. 이는 문서의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교회의 본질과 선교를 연결시키면서 34항부터 42항까지 독립적으로 서술한 항목이다. 35항은 교회의 본질로서 선교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35.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주로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말과 행동으로 선포하도록 부름받았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할 책임을 갖고 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삶으로 드러내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미리 맛봄이 되도록 부름받았다. 따라서 선교는 교회의 존재 자체에 관한 것이다.⁵⁴⁾

이러한 선교는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36. 교회가 자신의 삶 속에 구원의 신비와 인류의 변화를 구현하면서, 그리스도를 통해 만물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또 서로 화해시키는 그리스도의 선교(사명)에 참여하는 것”과 “예배와 피조물에 대한 청지기직을 포함하는 봉사와 선포를 통

53) 위의 책, 253.

54) 위의 책, 261.

해, 하나님 나라의 실재에 참여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⁵⁵⁾ 방식으로 나타난다. 또한 구체적으로 고통과 궁핍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실천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40. 교회는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주변으로 밀려난 자를 위한 변호와 돌봄으로 모든 사람의 고난을 함께 나누도록 부름받았고, 또 능력을 받았다. 이것은 불의한 구조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드러내고 또 그것의 변화를 위해 일하는 것을 요구한다. 교회는 궁핍과 자비의 사역을 통해(참조. 눅4:18-19) 복음의 소망과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부름받았다.⁵⁶⁾

2장에서 역사 속의 교회를 서술하고 있다. 교회는 아직 도상에 있는 완성되지 않은 교회이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으나 아직 충만한 코이노니아는 아닌 교회로 설명하고 있다. 이 장에서 다시 앞선 「교회의 본질과 목적」 3장의 코이노니아로서의 교회에서 다른 “코이노니아와 다양성”이 이동되었다. 코이노니아 안에서 다양성과 일치성은 “하나님이 교회에게 베풀어주신 은혜의 선물”로 정의된다.⁵⁷⁾

3장 “세상 안에서 그리고 세상을 위한 코이노니아의 삶”으로서의 교회는 이전 문서에 다루었던 사도적 신앙, 세례, 성만찬, 모든 신자들을 위한 사역 등의 내용이 공유되고 있다. 이는 개신교회와 정교회의 전통을 배려하면서 BEM 문서에서 다루었던 실제적인 공통점을 기술하고 있다. 다만 아직 일치를 이루지 못한 문제들을 제시하면서 일치를 위한 과제를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유아세례에 대한 입장, 다른 교회에서 받은 세례의 유효성과 재세례에 대한 입장, 세례가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이해하는지, 아니면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하는지 등이다. 이 장에서는 안수받은 사람들의 교역과 감독직의 사도적 계승, 감독직의 수행의 개인적, 공동체적 성격과 집단적 성격을 설명하고 있다.

4장은 “세상 안에서 세상을 위한 교회”라는 제목을 갖고 있다. 5장의 결론과 직결되는 내용으로 볼 수 있고, 앞서 다루었던 교회의 선교적 본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교회의 선교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가르침에 기초하고 있음을 우선적으로 밝히고 있다.

109. 예수의 선교의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요 3:16)는 말씀 안에 분명하게 표현되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세상에 대한 첫 번째 최우선적 태도는 인류 역사 속에 태어난 모든 여성과 남성과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다. ... 이 문서에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확신 가운데 하나는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 (교회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세상의 변혁을 위한 도구로 의도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섬김(디아코니아)은 교회의 존재 자체에 속한 것이다.⁵⁸⁾

세상 안에서 세상을 위한 교회의 또 다른 모습은 도덕적 공동체이다. 문서는 도덕적 공동체로서

55) 위의 책, 262.
56) 위의 책, 263.
57) 위의 책, 272.
58) 위의 책, 299.

교회의 본질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교회는 도덕적 헌신이 필요한 공동체이지만 도덕적 행동과 헌신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와 함께 할 때 가능하다.

113.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항상 신적인 용서와 은총의 영역 안에서 살고 있다. 이런 은혜는 믿는 사람의 도덕적 삶을 불러일으키고 형성한다. 제자도는 도덕적 헌신을 요구한다. 교회의 구성원은 신실하든 그렇지 못하든, 도덕적으로 살든 죄를 짓든, 그들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용서와 새롭게 하시는 은혜에 의존한다. 교회는 도덕적 성취가 아니라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에 의존한다. ... 바로 이런 신앙과 은혜의 근거 위에서 도덕적 헌신과 공동의 행동이 가능하고 심지어 교회의 삶과 존재에 본질적인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⁵⁹⁾

이 문서가 제시한 교회론을 모든 교회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때문에 결론은 다시 한번 다양한 현실 상황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교회의 본질과 선교적 과제가 모든 교회들에 의해 수용되기를 권하고 있다.

121. 그러나 이런 수렴이 모든 곳에서 수용된 것은 아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신교파 주의나 반에큐메니칼 정신으로 표현되는 현저한 후퇴가 있었다. 또한 심오한 신학적 확신의 결과나 에큐메니칼 연구 자체의 약점 때문에, 수용을 거부하는 예도 있다. 모든 교회는 그들의 삶의 모든 차원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함께 명시적으로 표현해야 할 과제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았다. 교회는 끊임없이 회개와 갱신으로 부름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역동적이고 순례하는 성격이라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함께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⁶⁰⁾

이러한 결론은 21세기를 맞이하는 교회에게 주어진 도전이며 과제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와 인류의 현장에서 교회는 신앙의 공동체로서 선교와 봉사의 책임을 갖고 있다. 이 문서는 교회의 선교적 책임을 성서와 교회사를 통하여 강조하고 있다.⁶¹⁾

3) 「교회: 공동의 비전을 향하여」(2012)

이제 현대 에큐메니칼 교회론의 종합이라 할 수 있는 비전문서, 즉 「교회: 공동의 비전을 향하여」의 내용과 신학적 의미를 살펴보자. 서문에서 신앙과 직제위원회 총무 존 지보와 의장 바실 리오스는 이 문서가 신앙과 직제위원회가 BEM 문서 이후 두 번째로 발표한 의견수렴 문서라고 밝히고 있는데, 회원교회의 응답을 통하여 계속 발전시켜가기 위한 프로젝트 문서라는 의미이다. 비전문서는 2011년 발표된 연구 문서 「하나의 세례: 상호 인정을 향하여」에서 제기된 교회론적 질문들을 기초로 작성되었고, 1993년 신앙과 직제 세계대회와 세 번에 걸친 신앙과 직제 본회의(1996, 2004, 2009), 18번에 걸친 상임위원회 회의와 수많은 사전 모임을 통하여 완성되었다⁶²⁾.

59) 위의 책, 301.

60) 위의 책, 304.

61) 이러한 과제는 신앙과 직제위원회 뿐 아니라 세계교회협의회 안에 있는 전도와 선교위원회(CWME)의 논의로 연결되어 2013년 세계교회협의회 10차 부산총회에 제출된 「함께 생명을 향하여: 기독교의 지형 변화 속에서 선교와 전도」 문서로 정리되었다.

비전문서는 “공동체적 친교를 통하여 함께 성장하고 세계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함께 투쟁하며 과거와 현재에서 우리가 처한 분열을 함께 극복하기 위한 목적을 추구하면서 성삼위 하나님께 속한 교회에 대하여 한 목소리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서 출발하였다.⁶³⁾ 이 질문은 “이 세계 안에서 교회에 대하여 한 목소리로” 말할 수 있을 것인가를 묻고 있다. 때문에 교회가 이 세계 안에서 존재하는 한 계속하여 물어야 할 질문이다.

비전문서는 서로 구분되지만 상호 깊이 연관되는 두 개의 목적을 상정하고 있다.

- (1) 갱신. 에큐메니칼 문서로서 여러 교회들의 신학적 표현과 교회적 경험을 담아 독자들이 교회의 삶을 더 충만히 살도록 돕거나 지금까지 무시하거나 망각했던 측면을 깨닫게 한다.
- (2) 신학적 합의. 비전 문서에 대하여 보내줄 회원 교회의 평가와 반응을 통하여 일정한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다.⁶⁴⁾

서론에서 문서는 신앙과 직제위원회의 목적이 WCC와 마찬가지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며 “이로써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와 공동의 삶과 세상을 향한 증거와 섬김 가운데 표현되는 하나의 믿음과 하나의 성만찬적 공동체를 통한 가시적 일치로 나아가도록 서로를 독려하고 그러한 일치를 향하여 전진함으로 세상이 믿게 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⁶⁵⁾ 또한 문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식으로 교회를 섬기기를 희망한다고 밝히고 있다.

- 1) 주요 교회론적 주제들에 대하여 최근 수십 년 동안 진행된 에큐메니칼 대화의 결과물들을 일별하는 하나의 종합을 제공,
- 2) 대화의 중요성을 확증해주는 긍정적인 성과물을 평가하는 일에 교회들을 초청함과 동시에 미진한 부분을 지적하고 또한 지금까지 충분히 주목받지 못했던 영역을 표시,
- 3) 교회들이 보다 큰 일치를 향해 나아가도록(엡4:12-16) 주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스스로 성찰하는 기회를 제공한다.⁶⁶⁾

서론에는 이 문서를 진지하게 읽고 난 후 교회들이 각자의 입장에서 느끼는 반응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는 질문들을 제시하고 있다.

- 1) 당신의 교회가 파악하고 있는 교회론적 인식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가?
- 2) 교회들이 일치 안에서 성장하기 위한 토대를 제공하는 일에 어느 정도 공헌하는가?
- 3) 교회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적응과 갱신을 이루도록 도전을 주고 있는가?
- 4) 이 문서에서 제시된 것과 같은 교회관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다른 교회들과 생활 및 선교에서 한층 더 가까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얼마나 가능하겠는가?
- 5) 교회의 생활에서 어떤 측면이 더 논의될 수 있는가? 신앙과 직제위원회가 교회론의 분야에서 지속적인 사역을 전개할 수 있도록 당신의 교회는 어떠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겠는가?⁶⁷⁾

62) WCC, 『WCC 제10차 총회 자료모음』(서울 : WCC 10차 총회 한국준비위원회, 2013), 11-77.

63) 위의 책, 11.

64) 위의 책, 12,3.

65) 위의 책, 15.

66) 위의 책, 16.

문서는 첫 장에서 다시 한 번 교회의 본질인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회를 확인한다. 1장 A. 하나님의 구상 안에 있는 교회의 3항을 보자.

3. 성령은 오순절날 아침에 제자들 위에 강림하셨다.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시작하도록 능력을 갖추어 주기 위해 오신 것이다(행 2 : 1 - 41).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말은 이따금씩 라틴어 *missio Dei*, 즉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로 표현된다.)은 성자와 성령을 보내심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렇듯 성삼위의 구원활동은 교회가 무엇인가를 적절히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신앙과 직제위원회가 출간한 연구 문서인 <하나의 믿음을 고백하기>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그리스도인들이 니케아 - 콘스탄티노플 신조에서 믿고 고백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역과 교회의 현실 간에는 절대로 끊어질 수 없는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성서가 증언하는 바이다. 교회의 근원은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성삼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뿌리박고 있다.”⁶⁸⁾

에큐메니칼 교회론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교회의 일치를 추구하는 교회론이다. 이는 현대 에큐메니칼 운동이 출발한 이래 지속적으로 견지한 관점이다. 이미 성서의 증언에 기초한 교회는 선교적 교회라는 점을 앞선 「교회의 본질과 선교」에서 밝혔고, 비전문서 역시 같은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로 세워진 교회의 선교가 B. 역사 속에 나타난 교회의 선교에서 정리되고 있다. 이 부분은 「교회의 본질과 선교」 2장에서 독립적으로 다루었던 내용을 흡수하여 정리하였다. 다만 코이노니아로서의 교회와 지역교회들의 코이노니아는 2장으로 분리하여 포함하였다.

교회의 선교는 다양한 지역과 환경, 문화 속에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교회의 사명이며, 전하는 방식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더욱이 피선교지의 교회들이 복음을 전해준 나라의 교회들을 도울 정도로 복음이 전해졌다는 사실을 추가한 것은 비서구교회들에게 고무적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현대사회에서 교회의 선교는 여전히 많은 도전을 받고 있고, 특별히 세속문화에 맞서 선교해야 하는 현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7. 오늘날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은 세계 도처에서 계속되고 있다. 몇 가지 상황 전개가 교회의 선교와 자기 이해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인식이 광범위하게 확산됨에 따라 그리스도인들은 한편에서 예수가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선포하는 것과 다른 한편으로는 타종교의 권리주장 간의 관계에 대한 성찰을 심화시키도록 도전받고 있다. 통신수단이 발전함에 따라 교회들은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설립, 유지하는데 새로운 방식을 모색하도록 요청받고 있다. “이머징 교회들”은 교회됨의 새로운 방식을 제안하면서 오늘날의 필요와 관심에 대해 그저 전통적인 방식으로 대처하는 교회들에게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세속 문화가 전지구적 차원에서 약진함에 따라,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삶이란 굳이 하나님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충족될 수 있다고 믿으면

67) 위의 책, 17.

68) 위의 책 19.

서 신앙의 성립 가능성 자체를 의문시하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⁶⁹⁾

2장의 세 번째 항목은 그러한 상황에서 여전히 교회의 일치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교회 일치는 지상의 교회들이 추구해야 하는 영원한 진리이지만 일치의 여부는 각각의 교회들의 수용과 변화에 달려 있다.

9. 가시적인 일치를 위해 요구되는 것은 교회들이 서로 상대방 안에 니케아 - 콘스탄티노플 신조(381)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인 교회”가 진정으로 존재함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호 인정은 결국 어떤 경우에는 특정 공동체가 교리나 관행이나 목회에 있어 일정한 변화를 수용하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기도 하다. 이러한 변화는 일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교회들에게 의미심장한 도전을 나타낸다.⁷⁰⁾

2장은 성삼위 하나님께 속한 교회라는 표제를 달고 있는데, 먼저 A.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분별하기에 대하여 설명한다. 신약성서와 전통에 나타난 교회에 대한 다양한 정체성을 인정하면서 서 전통과 성서의 관계, 교회의 신비에 대한 여러 가지 이미지를 소개하고 있다.

12. 매우 다양한 교회론적 견해를 신약성서의 여러 책들과 이후에 나온 전통에 서 찾아볼 수 있다. 신약의 정경은 이러한 다양성을 포용함으로써, 교회론적 다양성이 교회의 단일성과 양립 가능한 것임을 입증한다. 그렇지만 바람직한 다양성이라 해도 거기에 일정한 제한이 있어야 함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바람직한 다양성이란 기독교 공동체의 삶에 우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교회가 지닌 보편성(catholicity)의 한 측면이다. ... 교회가 가진 신비성에 제대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이미지와 견해(하나님의 백성, 성령의 전, 포도나무, 양무리, 신부, 권속들, 병사들, 친구들 등)을 적절히 이용하며 서로 견주어 보는 것이 필요하다.⁷¹⁾

이어서 B.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속한 교회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속성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으로 정의한 교회를 설명하고 있고, 일치와 다양성 안에서의 코이노니아와 지역교회의 코이노니아를 다루고 있다.

3장은 공동체적 친교 안에서 성장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문서의 코이노니아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 이전 문서와 다른 내용이 추가되었는데 종말론적 관점이다. 3장 “A. 이미 그러나 아직”에서는 교회를 종말론적 실재, 종말론적 공동체인 동시에 순례자의 공동체로 정의하고 있다.

33. 교회는 종말론적 실재로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앞당겨 살고 있으나, 그 완전한 실현에는 아직 이르지 못하였다. 성령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주된 활동자로서 교회로 하여금 이러한 과정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봉사자가 되도록

69) 위의 책, 21.

70) 위의 책, 22.

71) 위의 책, 24.

인도하신다.

34. 한편으로 교회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안에서 유지되는 신자들 간의 공동체적 친교로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종말론적 공동체를 이미 구현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친교의 삶이 유효하게 실현되어 있음을 드러내주는 가지적이고도 유형적인 표지들은 다음과 같다. 사도들의 신앙을 받아서 공유하는 것, 세례를 베푸는 것, 성만찬의 빵을 떼어서 나누는 것, 함께 모여 서로를 위해 또한 세상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는 것,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섬기는 것, 다른 이들의 기쁨과 슬픔에 동참하는 것, 물질적 도움을 주는 것, 정의와 평화를 위한 선교와 협력을 통해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⁷²⁾

3장의 나머지 부분은 교회의 신앙과 성례전, 안수직을 포함한 교회에서 목회자의 권위와 감독직의 목회자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교회 안에 있는 삼중직(감독, 장로, 집사) 교역에 대한 논의도 다양한 교파적 전통을 생각할 때 논의가 필요한 주제로 보인다.

비전문서를 이전 문서와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는 4장에 나타난다. A. 창조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서술은 앞선 문서에 없는 내용이다. 현재 인류가 겪고 있는 기상위기와 생태계 문제에 대한 교회의 인식과 실천적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58. 예수께서 선교적 사명을 펼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요 3 : 16)라는 말씀에 가장 간명하게 표현되어 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최초이자 최고의 태도는 바로 사랑이며, 그 사랑은 모든 자녀, 즉 한번이라도 인류 역사 속에 태어났던 모든 여자와 남자를 대상으로 할 뿐 아니라 실로 전 창조세계를 향한 것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심으로 선포하셨고, 그의 능한 행적, 특히 그의 죽음과 부활로 이룩하신 파스카의 신비를 통해 시작된 것인 바, 전 우주가 지향하는 최종적인 목적지인 것이다.⁷³⁾

교회는 세상 안에서 세상을 위한 존재라고 할 때 세상에 있는 인류와 창조물들이 직면한 가장 큰 위기와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B. 복음에 따르는 도덕적 도전들과 C. 사회 속의 교회에 대한 기술은 이전 문서의 언급에서 진일보한 결론이라 할 수 있다. 「교회의 본질과 선교」 문서가 에큐메니칼 교회론의 수렴과 이에 대한 도전에 대한 교회의 대응을 결론으로 제시한 것에 비해 비전문서는 코이노니아 교회론을 강조하며 선교의 책임과 함께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참여를 제시하고 있다.

67.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일치는 코이노니아, 즉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은혜로 이 내려주시는 공동체적 친교의 은사 안에 존재한다. 코이노니아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공동체적 삶으로서, 신앙을 통한 일치, 성례전적 삶을 통한 일치, (사역과 선교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섬김을 통한 일치 등, 세 가지 상호 연관된 방

72) 위의 책, 38.

73) 위의 책, 59.

식 안에서 드러난다는 점에 대해 점차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전, 특히 성만찬의 거행은 현대에서 코이노니아가 뜻하는 바를 보여주는 역동적인 범례로 작용하고 있다. 예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친교 및 모든 시대와 장소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를 경험한다. 그들은 집례자와 더불어 모여서, 복음을 선포하고,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고, 가르치고, 배우며, 찬양과 감사를 드린 후에, 주님의 몸과 피를 받아모시고, 사명을 위해 파송된다. 성 요한 크리소스톰은 두 개의 제단이 있다고 말하였다. 하나는 교회 안에 있고, 다른 하나는 가난한 이들, 고난받는 이들, 곤경에 처한 이들 가운데 있다. 교회는 예전을 통해 힘과 자양을 얻어서 세상을 향한 예언과 공훈의 사역 속에서 또한 인간에 의해 야기된 온갖 형태의 부정의와 억압, 불신과 갈등에 대항하는 투쟁 속에서, 그리스도가 시작하신 생명 살림 선교를 지속해나가야 한다.

이상과 같이 비전문서의 주요 내용을 살피고 발표자의 관점에서 해설하였다. 에큐메니칼 교회론의 관점에서 비전문서가 갖는 신학적 의의는 적지 않다. 신앙과 직제운동이 시작된 지난 백여년간 계속된 교회론을 정리하였고, 현대 세계에서 교회가 지향해야 하는 방향을 보여주었다. 이전의 교회론 논의들을 뛰어넘는 의미보다는 축적된 논의들을 정리하고 종합하여 진일보한 관점을 제시했다고 평가하고 싶다.

세계교회협의회 중심의 에큐메니칼 신학이 갖는 특징은 협의회라는 성격에 맞게 회원교회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총회와 각 위원회에서 발표되는 문서들은 회원교회의 전통과 입장에 따라 계속 수정되고, 발표된 이후에도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다. 대표적인 것이 비전문서이고, 2013년 부산총회에서 발표된 「함께 생명을 향하여: 기독교의 지형 변화 속에서 선교와 전도」(선교문서)도 계속된 회람과 의견 수렴을 통하여 각 지역의 상황에 따라 적용하고 해석하고 있다.

4. 결론 - 정리와 종합

비전문서에 이르기까지 에큐메니칼 교회론의 발전과정과 비전문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다. 비전문서 뒤쪽에 실린 “역사적 기록”에 밝힌 것처럼, 이 문서는 1927년 로잔에서 열린 신앙과 직제 세계대회에서 제시된 7가지 신학적 주제 가운데 교회론을 종합한 것이다.⁷⁴⁾ 특별히 1998년 발표한 「교회의 본질과 목적」 문서와 이를 토대로 2006년 포르토 알레그레총회에 제출한 「교회의 본질과 선교」가 주요 골격을 이루고 있고, 1927년 신앙과 직제운동 창립 이후의 교회론을 망라하고 있다. 앞에서 살핀 것처럼 신앙과 직제운동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진 에큐메니칼 교회론은 교회의 일치를 기초로 하여, 선교적 교회론과 협의회적 교회론, 공동체적 교회론으로 발전해왔다. 비전문서는 이러한 논의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동시에 21세기의 교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서는 완성된 문서로 선포된 것이 아니라 세계교회의 응답을 구하는 회람문서의 성격으로 제시되었다. 교회론 논의는 어느 시대이든 완성되거나

74) 위의 책, 68. 신앙과 직제 창립총회의 7개의 분과별 주제는 1분과 일치에로의 부름, 2분과 교회의 메시지-복음, 3분과 교회의 본질, 4분과 교회의 공동 신앙고백, 5분과 교회의 교역, 6분과 성례전, 7분과 기독교권의 일치와 세상과의 관계이다.

종결될 수 없으며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교회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다.

신앙과 직제위원회는 비전문서에서 제안한 것처럼 지난 8년 동안(2013~2020) 이 문서에 대한 회람과 의견을 받았다. 이 기간에 45개 회원교회와 13개 국제위원회와 나라별 교회협의회 그리고 지역 에큐메니칼기구, 그리고 20개의 기타 에큐메니칼 활동단위들과 개인들이 보내준 총 78개의 응답을 접수하였다.⁷⁵⁾ 신앙과 직제위원회는 2015년부터 2020년 사이에 이 응답들을 정독하고, 검토하고, 분석하는 회의를 여러 차례 모였다. 그 결과물을 올해 *Churches Respond To The Church: Towards A Common Vision Vol. 1,2*, (Ed. Ellen Wondra, Stephanie Dietrich, Ani Ghazaryan Drissi, 2021)로 출판하였고, 그 가운데 중요한 내용을 선정하여 소개하는 책자를 출간하였다.⁷⁶⁾

요약본에 실린 세계교회들의 응답을 보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응답이 교회일치에 있어서 가시적 일치의 현실적 가능성과 의미의 불분명성에 대한 의견이었다. 공동의 신앙고백과 성례전적 일치, 사역과 성직자의 역할과 권위에 대한 논의도 교회들 간에 차이를 발견하지만 정확한 의미를 공유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가시적 일치와 관련하여 상호인정이 현실적이며 충분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평화와 화해를 위한 공동의 실천에는 동의하지만 이러한 실천은 가시적 일치의 추구가 아닌 상호인정으로도 가능하다고 보는 의견이 있었다. 세계 교회가 공동의 신앙고백과 의사결정 과정과 목회자의 권위에 대한 차이를 가지고 있지만 이를 일치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도 있었다. 코이노니아와 관련하여 특정한 교회(전통)의 입장이 많이 반영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었다. 또한 에큐메니칼 운동의 실천에 있어서 전통적인 방식을 보다 급진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입장과 그렇지 않은 입장도 있었다. 보다 자세한 의견들은 두 권의 전체 자료집과 한 권의 요약본을 참고하기 바란다.

발표자는 비전문서를 읽으면서 몇 가지 물음이 떠올랐다. 먼저,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라는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조의 고백이 현실 교회 안에서 여전히 실질적으로 신앙고백이 되고 있는가? 이 신앙고백은 1세기를 지나 4세기에 이르러 제국의 교회로 정착한 교회가 교회 안팎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작성한 신조이다. 그러나 오늘의 교회는 전혀 다른 도전들을 마주하고 있다. 이단이나 박해와 다른 종류의 도전과 공격들이 교회 밖에서 밀려오고 있다. 예를 들어, 과학기술의 발전과 물질만능주의, 무신론과 도덕적 문제에 대한 질문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의 네 가지 표지는 기초의 의미를 갖지만 절대적인 기준으로 강조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

두 번째로, 현대 인류가 직면하는 위기는 이전의 교회가 맞았던 위기들과 다르다. 교회와 신앙의 차원이 아닌 인류의 잘못된 가치관과 기술사회의 부작용으로 초래된 것이 많다. 기후변화와 생태계 파괴로 인한 창조세계의 위기가 대표적이다. 비전문서는 이전 논의에 없었던 창조세계에

75) Faith and Order, *What Are the Churches Saying About the Church?* (Geneva: WCC Publication, 2021), 6.

76) 세 자료 모두 세계교회협의회 자료실 <https://www.oikoumene.org/resources/publications>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대한 관심을 수록하였다. 그러나 분량은 대단히 적다. 세계교회들의 응답에도 이 부분이 지적되었는데, 미래의 교회와 에큐메니칼 운동은 창조세계 파괴로 인한 인류의 생존 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로, 비전문서에 너무 많은 내용을 담은 것으로 보인다. 세계교회협의회 자체가 세계 각국에서 모인 신학자들과 목회자, 신자들의 논의구조이기 때문에 다양한 교파전통의 입장을 수용해야 하지만, 하나의 문서가 담는 내용이 어렵고 방대한 경우가 많아 지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비전문서의 경우 주제별로 보다 간략하고 분명하게 기술하고, 지금의 문서의 양과 내용이 해설서나 스터디가이드로 제공되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이러한 물음과 이견에도 불구하고 비전문서가 갖는 신학적인 의의는 크다. 다른 신학적 주제들과 마찬가지로 교회론도 신학자들이나 신자들의 논의로 완결될 수 있는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문서에서 언급한 것처럼 “도상에 있는” 작업이라 할 것이다. 교회와 세계의 관계가 역동적인 것처럼, 시대와 환경에 따라 교회에 주어지는 사명과 역할도 변할 것이다. 시대와 상황에 맞는 성서적이고 신앙고백적인 교회론을 고민하는 것이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될 것이다. 교회론은 축적된 논의의 종합이 될 것이다.

한국교회는 지난 8년 동안 이 문서에 대하여 응답하지 않았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 문서를 통하여 현대사회와 교회에 대한 성서적이고 신학적인 논의를 배우고 그 바탕에서 한국교회의 현실과 적용가능성을 논의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코로나 19 이후의 교회 - 생태 영성의 관점에서¹⁾

신익상 교수 (성공회대학교, 한국교회환경연구소)

코로나19와 위기들

코로나19 대유행이 현 인류 문명 전체에 걸쳐 오래도록 계속되며 인간 개개인의 삶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지금 이 상황만큼 시급히 해결해야 할 위기를 찾기는 힘들 듯하다. 백신으로 대응하는 인류에게 변이로 맞대응하는 바이러스의 놀라운 진화적 적응 앞에서 인류는 지쳐가고 있다.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이 상황을 인류는 잘 헤쳐 나갈 수 있을까?

사실 지난 50여 년간 발생한 전염병 가운데 75%가 코로나19처럼 인간과 동물에게 모두 전염되는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했다. 당분간 이러한 상황은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나아질 것 같지는 않다. 왜 그런 지는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따져보면 알 수 있다.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야생동물은 인간이나 인간이 기르는 가축과 비교해서 얼마나 많을까? 인간이 약 36%, 가축이 약 61%를 차지한다. 야생동물은 약 2~3%에 불과하다. 가끔 텔레비전에서 야생동물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고 있노라면 광활한 대지에 수많은 야생동물이 북적덜 것 같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지난 50여 년 동안 야생동물 개체수의 약 70%가 지구상에서 사라졌다. 지금 지구에 사는 야생동물의 개체수는 1970년대 개체 수의 약 30%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된 결정적 원인은 인간 자신에게 있다. 인간이 온 지구를 헤집으며 과하게 자연을 파괴하고 정복한 결과 야생동물들의 생명이 풍전등화에 놓이게 된 것이다.

사람에게 낯선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가 창궐하게 된 결정적 원인은 결국 인간의 탐욕이다. 인간이 자연을 함부로 대한 결과가 부메랑이 되어 인간에게 돌아온 것이다.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지난 150여 년간 인간들은 개발과 과소비, 공장식 축산 등으로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축소해왔다. 인간의 영역이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침범하면 할수록 인간과 야생동물이 밀접 접촉할 기회가 증가하게 된다. 그 결과로 야생동물에 있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넘어올 가능성도 커지게 된 것이다. 과도한 개발과 경제적 성장만을 추구하며 이익을 남기려는 인류의 탐욕이 수많은 생

1) 이 글은 몇 개의 대중 잡지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예정의 글을 발췌하여 조금 더 발전시킨 글로 어떤 방식이든 인용하는 것을 불허합니다.

물의 생명을 위협하고 지구의 생명 다양성을 훼손하고 있다. 이 탐욕은 부메랑이 되어 지구와 지구 위의 다른 생명뿐만 아니라 인간 자신마저도 위협에 빠뜨리고 있다.

개발과 경제적 성장에 관한 이야기에서 오늘날 빼놓을 수 없는 주제가 ‘제4차 산업혁명’이다. 하지만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은 사실 논란이 많다. 정말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서 ‘새로운’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부르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보통 시대를 규정하는 용어들은 그 시대가 지난 후 후대가 그 시대를 평가하면서 만들어진다. 하지만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는 그렇지 않다.

이 용어를 처음 제안한 클라우스 슈밥은 디지털을 기반으로 이전에는 분리되어 있던 다양한 과학기술들을 융합해서 사회, 경제, 문화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큰 변화가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설명한다. 이 변화는 단지 산업에만 국한하지 않고 사회 전체를 크게 변화시키리라고 전망하면서 말이다. 디지털 혁명을 기반으로 일차적으로 과학기술의 여러 성과를 융합하고, 이차적으로 여러 사회와 분야를 다양한 상상력으로 연결하여 산업에 실현하는 것이 제4차 산업혁명의 특징이다.

그러니 제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기술이 일차적으로 중요하다. 그런데 디지털 기술은 이미 제3차 산업혁명을 특징짓는 기술이다. 슈밥이 하려는 말은 제4차 산업혁명에 이르러 디지털 기술이 새롭게 어떻게 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 기술을 토대로 ‘초연결’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됐다는 것이다.

초연결이 무슨 뜻일까? 사물인터넷을 한번 생각해 보자. 사물인터넷, IoT는 인간이 아닌 기계들 사이의 연결을 일컫는 말이다. 스마트폰과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등이 연결되어 인간이 일일이 간섭하고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때가 되면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필요한 일들을 수행한다.

미국의 아마존 등에서 도입한 물류 로봇 시스템은 초연결의 성격을 명료하게 보여준다. 이 로봇들은 인간의 통제 없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물류를 처리한다. 로봇들끼리만 소통하고 이 로봇들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중앙통제가 없다. 그러면 금방 뒤죽박죽돼서 물류 시스템이 멈출 것 같지만 오히려 물류 처리 효율성이 몇 배 좋아졌다. 인간이 개입하지 않더라도 인공지능 간 소통과 연결만으로 생산성이 높아지는 시대가 온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로봇이 인간을 대신해서 일하고 인간은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시대가 되니 좋은 것 아닌가 싶기도 하다. 하지만 일이 그렇게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사람들 대부분은 일해야 먹고 살 수 있다. 로봇이 일을 대신해주면 그렇게 해서 생산된 것으로 일하지 않고 먹고살 수 있다면야 참 좋겠지만, 그렇게 되려면 로봇이 생산한 것을 모든 사람에게 적절하게 잘 나누어 줄 사회제도가 필요하다. 문제는 이런 사회제도는 인류 역사상 한 번도 나타났던 적이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많은 미래학자가 제4차 산업혁명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지 않고 있다.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산업 현장과 사회에서의 초연결이 인간의 노동을 산업 현장에서 분리할 테지만, 그것이 행복한 삶을 반드시 보장하긴 힘들다는 전망이다.

기술과학을 통해 눈부시게 발전하는 경제와 산업은 개발을 통한 성장주의를 따르면서 두 가지 위기를 가져온다. 하나는 생태계의 위기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 자신의 위기이다. 이제 인간이 다른 생활 방식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지구를 벗어나지 않는 한 모든 생명의 멸종과 인류 자신의 파멸을 눈앞에서 보게 될지도 모른다. 지구를 벗어난다고 해서 뿔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의 터전인 지구는 우리에게 '유일한' 터전이다. 우리는 어떻게 지구와 인류에게 희망을 되돌려줄 수 있을까?

위기들과 마주하는 교회의 자세: 영성, 전인적이고 총체적인 삶

기독교에는 이미 '영성'이라는 오래된 새 길이 있다. 영성은 인간이 어떻게 인간답게 살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길이다. 기독교 영성은 기독교 신앙에 따라 사는 삶 자체, 삶의 방향을 말한다. 따라서 영성은 삶을 온전하게 가꾸는 길이며, 이러한 삶을 전인적이고 총체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다.

'전인적'이란 정신과 몸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면서 조화를 이룸으로써 인간을 인간답게 한다는 뜻이다. '총체적'이란 영성의 영역이 개인의 내면세계에 국한하지 않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 나아가서 생물과 무생물을 포함하는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에까지 확장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기술과학과 자본주의가 결합하여 생산성과 효율이 높아지는 세상은 꽤 많은 인간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이르게 하고, 지구에게는 멸종과 파멸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모든 가치를 시장의 가치로 바꿔서 생각하는 사회에서 경제적 어려움은 생존의 어려움 자체다. 지구상 생물의 멸종과 파멸은 결국 인류 자신의 종말로 귀결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시대에 몸과 정신이 두루 조화롭게 자라는 전인적인 삶이 절실하다. 관계의 확장을 통해서 이전의 자기를 넘어 더 나은 자기로 성장해 가는 총체적인 삶이 절실하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인간은 참 인간이신 예수의 모습을 닮아간다. 모든 피조물의 신음을 외면하지 않고서 세상을 천국으로 이끄시는 예수의 모습 말이다.

특히 전인적인 삶이 총체적인 삶을 바탕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잘 형성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한 세상을 만들 때라야 몸과 정신이 온전할 수 있다. 인간과 인간 아닌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를 잘 형성해서 온 지구가 온전한 세상을 만들 때라야 몸과 정신이 조화를 이루며 자라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모든 것은 서로 협력해야 한다. 여기에서 선이 나온다는 사실을 기독교인은 이미 알고 있지 않은가? 제4차 산업혁명으로 표현되는 오늘날의 기술자본주의 사회에서 기독교인의 사명은 전인적이고 총체적인 영성을 성실하게 사는 데 있다.

물론, 이러한 영성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가장 훌륭한 출발점은 가장 바탕이 되는 예수의 복음을 실천하는 것, '회개하기'다. 세상을 바꾸겠다고 말하는 이는 자신을 바꾸는 일을 우

선적으로 고민하고 실천해야 한다. 나와 세상이 정말 연결되어 있다고 믿는다면, 더더욱 그렇다. 우리는 회개라는 다림줄을 들고 신과 세계 앞에 서야 한다. 한 손엔 신의 뜻을 부여잡고, 다른 손엔 세계가 놓인 현실을 부여잡아야 한다. 상황 앞에서 신의 뜻을 위해 스스로가 변화하며 나아가는 제자들에게 기독교 영성은 생태 영성의 비전으로 구체화된다.

생태 영성의 두 초점과 교회의 미래

생태 영성의 두 초점

오늘날 기후위기와 생물 대멸종이라는 생태적 난국과 산업현장에서 예상되는 인간 노동의 유례 없는 소외 문제는 동일한 근원,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에 공감한다면, 이에 대한 대안으로 생태 영성의 비전을 교회와 신앙의 바탕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에도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 인간의 탐욕이 가장 효율적으로 제도화된 것은 최근 200여 년간 계속되어 온 산업화 시대의 일인데, 이 시대는 개발과 성장주의로 무장하고 시장을 중심으로 욕망을 실현하는 사회구조로 나타났다.

이 사회구조는 철저하게 인간중심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정말 ‘모든’ 인간을 중심에 놓지도 않는다. 이 사회구조의 ‘인간중심주의’는 인간 아닌 다른 모든 존재들을 인간의 필요에 따라 어떻게 사용해도 괜찮은 ‘덜 떨어진 것’으로 받아들인다. 동시에,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물질적 풍요를 누가 더 많이 누릴 수 있는가에 따라 더 탁월한 인간과 그렇지 못한 ‘덜 떨어진 인간’으로 나뉘게 한다. 그렇게 해서 오늘날 시장을 중심으로 풍요를 누리려는 개발과 성장의 산업 사회는, 이러한 풍요를 제도적으로 보장받은 소수의 사람들 반대 편에 사용되고 폐기되는 비인간 존재들과 풍요에서 소외되는 대다수 인간들이 놓이는 이중적 소외를 만들어낸다. 결국 이러한 소외의 구조가 기후위기와 생명 대멸종, 대다수 인간 노동의 소외를 가져온 공통된 원인인 셈이다.

영성의 전인적이고 총체적인 성격을 생각할 때, 인간중심주의가 가져온 오늘의 위기 상황에서 지구 전체의 존재들을 두루 살피는 관점이 매우 절실한데, 이러한 관점이 반영된 영성으로서 생태 영성을 강조하는 것은 적절하고도 절박하다. 왜 그런지를 2021년부터 공식적인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파리기후변화협약의 한계를 음미함으로써 추가적으로 설명해 보자.

파리기후변화협약은 개발국, 개발도상국, 저개발국 등 195개 모든 당사국에 구속력 있는 최초의 합의다. 아쉽게도 이 협약은 각국의 감축 목표에 국제법상의 구속력을 갖도록 하는 데는 실패했다. 하지만, 개발국뿐만 아니라 195개 모든 당사국이 온실기체 감축 목표를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이 협약이 추구하는 단 하나의 목표는 명확하다. 2030년에 이르기까지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서 평균기온 상승을 2°C보다 훨씬 낮게, 기왕이면 1.5°C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다. 2018년 10월에 인천 송도에서 발표된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의 “1.5°C 특별보고서”는 파리기후변화협약의 이러한 목표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문서로 제출되어 만장일치로 승인된 바 있다.

하지만, 이 협약을 지키기 위해 각국이 내놓는 계획들은 현재의 성장을 계속 유지하면서 기후위

기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한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나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온실기체 감축 정책들은 모두 경제성장과 기후위기를 동시에 성취하겠다는 의지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탐욕적인 인간중심주의 경제성장 방식이 바로 기후위기와 생명 대멸종, 그리고 인간 사이의 극심한 불평등을 야기한 원인임을 생각할 때, 이들의 정책이 과연 실효적인 결과를 가져올지 심히 의심스럽다. 기후위기를 놓고 보더라도, 이미 산업화 이전 대비 1.1°C 정도의 지구적 평균기온상승이 진행됐고 1.5°C를 넘어서기까지 이제 겨우 10~20년 남짓 남은 상황에서 개발국을 중심으로 한 뼈를 깎는 진정한 변화의 노력이 필요하다. 생태 영성의 비전은 이 변화의 노력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바로미터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기독교 생태 영성은 두 가지 차원에서 생태 영성의 비전을 제공한다. 이 두 가지 차원을 ‘생태 영성의 두 초점’이라고 하자. 초점 하나는 만물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방식이고, 다른 초점 하나는 이 세계가 지속가능하기 위해 선결되어야 할 극적인 조건에 관한 것이다. 이 두 초점은 “십자가 없이 부활 없다”는 기독교 신앙에 의해 밀접하게 연관된다.

기독교 생태 영성의 첫 번째 초점은 ‘희생당하는 존재의 잠재성’이다. 이 초점은 만물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상호의존하고 있다는 영성의 총체적 차원을 재음미하게 한다. 사실, 만물의 상호 연결성, 상호의존성은 많은 생태적 세계관들뿐만 아니라 기술과학과 결합하며 발전하고 있는 성장주의 경제 체제도 화두로 삼고 있지 않은가? 앞서 보았듯 이것은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이념인 ‘초연결’과 맥을 같이 한다. 인간중심적인 성장주의 세계관과 생태학적 세계관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것처럼 보이는 상호의존성 개념 앞에서 우리는 다음을 물어야 한다. 상호의존과 연결이라는 말로써 기독교 생태 영성이 강조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생명이 유지되는 방식을 검토해 보자. 생명이 유지되는 과정은 외부 세계와 끊임없이 연결되고 상호작용하는 과정이다. 하지만, 이 연결과 상호작용에는 상호성이 아니라 모종의 일방향이 작동한다. 예컨대, 모든 생명을 가진 존재들은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먹는다.’ 먹는 행위는 먹는 주체를 중심으로 에너지와 물질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이지만, 이 상호작용이 추구하는 목표는 상호적이지 않다. 일방적이다. 먹고 먹히는 과정이 어떻게 상호적일 수 있겠는가? 먹는 존재는 자신을 ‘새롭게’ 유지하지만, 먹히는 존재는 단지 회복 불가능하게 소멸할 뿐이다. 이것을 상호의존이라고, 상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 생명의 계기는 연결과 관계를 매개로 하지만, 평등한 상호성을 전제로 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생명의 살림-살이 과정은 상생이 아닌 희생이 더 어울리는 말이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기독교 생태 영성의 두 번째 초점, 지속가능성의 문제로 넘어갈 수 있다. 생태 영성은 성장주의가 지속적인 성장과 풍요를 추구하면 할수록 이 세계와 인류가 파국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한다. 성장주의와는 다른 방식의 생활 양식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여기서 물어야 하는 것은, 지속가능성이라는 말로서 생태 영성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성장주의는 시장을 통해 실현되는 경제적 성장이 지속가능성을 실현한다는 생각을 기본으로 한다. 경제적 성장을 통해서 인류 문명은 영원히 지속 가능하다는 생각에 다름 아니다. 심지어는

기후위기 문제도 이러한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믿게 한다. 효율적인 경제적 성장을 통해 기후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성장주의에는 지속 불가능하다는 말이 발 디딜 틈조차 없다. 그런 것은 결함이 있는 것이거나 불완전한 것으로 폐기되어야 한다고 본다. 시장에 남아야 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것뿐이다. 성장주의는 어떤 종교성을 갖는 것처럼 보이는데, 영원을 추구하는 것은 본래 종교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다만, 성장주의는 영원(eternity)을 불멸(immortality)로 대체한다. 죽음이나 파멸을 경험하지 않고 계속 지속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다.

반면, 기독교적 생태 영성은 지속불가능성을 말함으로써만 지속가능성을 비로소 말할 수 있는 영성이다. 십자가 없이 부활은 없다. 죽음 없이 생명은 없다. 멸하지 않고서 생하는 방법을 기독교는 말한 바 없다. 죽는 자가 일어나는/일으키는 것이지, 사는 자가 일어나는/일으키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기독교적 생태 영성은 희생적 죽음에서 다시 사는 희망을 본다. 희생당하는 존재가 가진 잠재성이야말로 기독교 생태 영성의 초점이다. 단절을 감행하지 않고서 연속을 말할 수는 없다는 진리를 기독교 생태 영성은 말한다. ‘멈춤’은 지속을 위한 가장 근원적인 진리 사건이다.

예수 생전 거의 유일한 복음이었던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마4:17)는 말씀은 기독교적 생태 영성의 두 가지 초점을 명확히 한다. 이 말씀에서 하늘나라는 천상에 고정되어 지상에 있는 존재들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상으로 직접 움직여 ‘온다.’ 하늘나라의 도래는 영원할 가능성이 변화하고 생멸하는 이 세계로 진입해 들어오는 과정이다. 지속불가능한 것에 지속가능한 것이 섞여서 들어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늘나라는 이 세계에 담겨 있는 잠재성이 된다.

예수의 ‘회개하라’는 외침은 하늘나라가 이 세계에 임한다는 잠재적 성격을 전제로 할 때에야만 이해 가능한 요구다. 헬라어 메타노이아(metanoia)에 해당하는 ‘회개’라는 말은 마음의 변화를 말한다. 따라서, 회개하라는 요구는 마음의 변화를 통해 새로운 살림살이를 하라는 요구와 다르지 않다. 네 안에 있는 마음의 잠재성을 실현하라는 요구인 것이다. 삶과 죽음이 함께 있는 우리의 살림살이 속에 영원한 살림살이로 이끄는 힘이 있다. 우리의 마음에 하늘나라가 있다. 단절하는 삶 속에 영원한 삶이 있다. 이것이 기후위기와 생명 대멸종의 위기, 새로운 차원의 인간 소외에 대면해서 기독교 생태 영성이 추구해야 할 신앙의 초점이다. 성장주의가 제시하는 지속 가능한 삶의 비전과 단절하고 희생과 단절 속에서 참된 지속을 실천하는 기독교 생태 영성의 초점이다.

교회의 미래를 꿈꾸며

오늘날 기독교의 영성이 기독교 생태 영성의 초점을 통해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교회는 희생당하는 존재의 잠재성을 현실화하는 공동체라고 말해 볼 수 있다. 그 현실화의 방식은 생명의 원리로서 지속불가능성이다. 나는 코로나19를 모든 희생당하는 존재들과 함께 관통해야 할 교회가 이러한 방식(지속불가능성)과 존재 가치(희생당하는 존재의 잠재성 현실화)를 두루 추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계관과 존재 방식에로의 전환을 감행해야 한다고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교회는 세계와 교회와의 관계를 청지기론이 아닌 토마스 베리(Thomas Berry)의 ‘지구의

권리론'나 장회익의 '온생명론'으로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 토마스 배리는 지구를 주체로 대할 것을 요구하면서 인간은 지구의 장엄한 자기-표현의 일부를 이루는 지구공동체의 부분이라고 말한다. 장회익은 태양-지구 시스템을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개체 생명(날생명)의 가장 바탕이 되는 생명, 온생명이라고 부르고 이 온생명과 개체 생명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생명을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장회익의 생명 이해에는 죽음에 관한 성찰이 담겨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모든 개체 생명은 죽음이 있기에 비로소 생명일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장회익의 온생명론에서 날생명이 일정 시공간 안에서 성장하고 유지되는 과정에,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진화가 일어나기 위해 날생명 차원에서의 생성과 소멸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지구의 권리론이나 온생명론이나 인간중심주의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며 인류 문명의 진보를 향한 욕망이 지구나 태양-지구 시스템을 파괴한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사실, 인간이 신을 대신하여 지구생태계를 돌본다는 청지기론에는 인간이 지구생태계의 다른 존재들과 다른 지위를 갖는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인간이 지구의 모든 다른 존재들보다 우월하다는 생각 속에서 인간이 보다 열등한 지구생태계를 포용해야 한다는 자비의 마음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한 번도 이루어진 적 없는 일을 목표로 설정해 놓고 인간의 지구생태계 파괴 행위를 적당히 무마하고 넘어가보려는 인간의 자기기만적 나르시시즘에 불과하다. 지구의 권리론과 온생명론은 모두 인간이 지구생태계의 부분으로서 전체로서의 생태계 내지는 온생명에 생명의 빛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다. 청지기론은 주객이 전도된 이론인데, 인간이 지구생태계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구생태계가 인간을 돌본다는 생각이 더 진실에 가까운 생각이기 때문이다.

생태해방신학을 말하는 대니얼 카스티요(Daniel P. Castillo)의 견해를 참고할 때, 성서가 인간의 우월성을 신의 형상과 관련해서 제시하는 경우는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말하려는 맥락이 아니라 인간 공동체 내에서의 불의한 폭력 구조 안에서 신음하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인간과 이들을 폭압하는 지배권력과의 관계라는 맥락이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청지기론이 인간중심주의에 머무는 한, 인간임에도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인간과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존재들 모두에게 자행되는 폭력과 억압을 충분히 막아낼 수 없다. 인간중심주의의 이중적 소외 구조를 타파하는 유일한 방법은 인간중심주의를 전제하지 않는 세계관으로 세상을 고쳐 보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는 보다 자기-성찰적인 세계관을 품어야 한다. 하느님은 우리를 통해 지구를 돌보시지 않는다. 하느님은 지구생태계를 통해, 온생명을 통해 우리를 돌보신다. 우리는 온생명을 염두에 두고서 개체 생명 사이에 형성되는 관계를 재인식해야 한다. 희생의 일방성을 통해 성취되는 생명의 원리가 온생명과 날생명을 모두 고려하는 가운데 이해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자발적 희생은 물론 강제된 희생까지도 남김없이 존중되며 가슴 저리게 기억되어야 한다. 교회는 희생의 '기억' 저장소가 되어야 한다.

둘째, 교회는 생태 영성의 두 초점을 현실화하기 위해 성장과 대형화를 향해 있는 교회의 제도와 구조를 버려야 한다. 이 구조와 제도는 에너지 과소비 구조이며 위계 구조라는 점에서 인간중심주의의 이중적 소외를 그대로 재현한다. 희생당하는 존재의 잠재성 현실화를 위해 헌신하는

신자들의 공동체인 작은 교회들 간의 연결과 연대 구조를 만들어가야 하며, 이러한 노력은 하나의 획일화된 절대적 권위를 갖는 간편한 제도나 이념이 아닌, 역동성을 갖는 대화(독백이 아닌)와 투쟁(경쟁이 아닌)을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 도달할 수 없는 영원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낭 지속가능성을 말하는 공동체가 아닌, 멈춤을 기반으로 연결되는 생명의 원리, 곧 지속불가능성의 원리를 늘 숙고하는 교회 공동체로 진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당대 희생당하는 존재들의 입장에 서서 인류 문명의 흐름에 참여해야 한다. 이것을 교회의 예언자 정신으로 불러도 좋다. 추락하는 고난의 함수에서 극소점을 만들어가야 한다. 지금 교회가 가장 고려해야 할 존재들은 지구생태계이며 미래 세대다. 먼저 마음을 고쳐먹는 교회라는 것을 전제로, 성장과 개발을 위해 공간적 수탈과 시간적 수탈을 지속하고 있는 인류 문명에 멈춤의 지혜를 알려야 한다. 이를 위한 연대와 단체 행동이 필요하다면, 교회는 자신의 루틴을 멈추고 세상에 나서야 한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과 공간이 별로 없다는 사실을 개체 인간의 관점을 넘어서 숙고해야 하며, 숙고의 깊이 만큼 넓고 길게 실천해야 한다. 교회의 사회적 행동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대다.

코로나19 이후의 교회¹⁾ - 교회갱신의 관점에서

조성돈 교수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목회사회학)

1. 전염병과 종교:

전통적으로 전염병과 같은 큰 위기가 닥치면 종교는 부흥했다. 죽음 앞에서 종교를 찾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었고,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병에 걸렸다면 나음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죽음 이후에 닥칠 심판과 천국행을 위해서 사람들은 교회로 나아왔다. 그런데 금번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 인류는 역사상 처음으로 종교를 외면했다. 심지어 교회가 전염병의 온상지인 것처럼 인식이 되고, 감염의 통로로 여겨졌다. 이로써 교회는 사회에서 외면당했고, 손가락질 당했다. 이것은 역사를 살펴볼 때 아주 특이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종교사회학자인 로드니 스타크(Rodney Stark)는 ‘기독교의 발흥 (The Rise Of Christianity)’²⁾ 라는 책에서 초기 기독교회의 성장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그 가운데 우리의 눈길을 끄는 부분은 4장으로, ‘역병, 네트워크, 개종’이라는 부분이다. 여기서 스타크는 초기 기독교가 역병이라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간단히 요약을 한다면, 역병이 닥친 상황 가운데 다른 종교나 철학은 그 원인과 미래를 이야기하지 못했다. 그러나 기독교는 절대자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설명했다. 이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설명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독교에는 죽음 이후에 갈 수 있는 천국이 있었다. 천국 소망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었다. 이 소망은 현재의 죽음을 두려움으로 경험하지 않게 도와주었다. 기독교인들은 이런 소망 가운데 죽음도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서 사랑과 선행이 표현되었다. 당시 다른 이들은 전염병이 발현되면, 환자를 길거리로 내어 버리고, 그들을 두고 도망가기에 바빴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서로를 돌보았다. 의료기술이 없던 당시 환자들에게 베풀어지는 간단한 돌봄, 즉 물과 음식을 제공하는 기초적인 돌봄으로도 환자들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래서 점점 ‘차별사망률’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더군다나 죽음마저 소망으로 받아들였던 이들이기

1) 몸글의 대부분은 곧 발행될 ‘생명과말씀’ 제 30권에 실린 예정인 논문 “위기에 마주한 한국교회의 전환”에서 요약, 발췌했음을 밝힌다. 다만 제안은 본 발표를 위해 구성했고, 나아가는 글을 덧붙였다.

2) Rodney Stark, *The Rise Of Christinnity*, 손현선 역. 『기독교의 발흥』 (서울: 좋은씨앗, 2016)

에 병을 두려워하지 않고 환자들을 돌보았다.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었다. 이러한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 그 감격으로 말미암아 적극적으로 또 다른 이들을 돌아보았다. 즉 면역력을 갖춘 이들이 마치 ‘전신갑주’를 입은듯, 환자 사이를 누비고 다녔을 것이다. 이러한 선행을 경험한 자들, 이러한 선행을 보고 들은 자들이 늘어나면서 역병이라는 위기 가운데 초기 기독교가 발흥할 수 있었다고 스타크는 설명하고 있다.

그의 진단은 아주 설득력이 있다. 그리고 역사 가운데 전염병은 실제로 종교의 발흥을 여러 차례 가져왔다. 종교개혁 역시 전염병의 영향을 받았다. 당시 치명적이었던 흑사병이 그 배경이다. 기존 로마 가톨릭교회의 지도자들이 흑사병이 마을과 도시에 닥칠 때마다 도망을 친 것에 반해서 종교개혁자들은 마을 사람들이 다 떠난 도시에 의료진과 공무원들과 함께 남아 환자들을 돌보았다. 심지어 루터는 1527년에 쓴 ‘죽음 앞에서 피난해야 하는가(Ob man vor dem Sterben fliehen moege)’에서 개신교 목회자들에게 지침을 내리는데, 사람들에게는 죽음 앞에서 도망을 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목회자들에게는 목자로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라고 한다. 실제로 루터는 비텐베르크에 흑사병이 닥쳤을 때 그 자리를 지키며 강의와 설교를 진행하고, 죽은 자들을 위한 장례와 남은 자들을 위로하는 일을 감당했다. 바로 이러한 것이 당시 신흥종교였던, 개신교가 독일 사람들의 마음에 자리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

또 한국에서도 선교 초기 콜레라가 창궐했다. 백성들은 단지 미신을 통해서 병을 피하고자 했다. 심지어 쥐가 병을 옮긴다고 해서 문 밖에 고양이 그림을 붙여 놓는 것이 방역이었던 때이다. 그대 조정에서 제증원 원장이었던 에비슨 선교사를 방역책임자로 임명했다. 서양의료기술을 통해 이 역병을 이겨내 보고자 한 것이다. 당시 에비슨과 선교사들의 목숨을 건 헌신으로 당시 조선은 큰 덕을 보았다. 그중에 한 명이 바로 백성에서 승동교회의 장로가 되었던 박성춘이다. 당시 정부에서는 방을 붙여서 백성들에게 치료를 권했다. ‘예수병원에 가면 살 수 있는데 왜 죽으려 하는가?’ 이런 헌신을 통해서 기독교가 조선 땅에 자리잡게 되었다.

위의 사례에서 보면 기독교의 발흥과 개신교의 발흥, 그리고 한국교회의 발흥 역시 자체적인 선행과 시대의 요구에 응답한 역할이 주요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외부적으로 보면 전염병이 가져온 사회변동이 기존 기득권층의 종교에 분열을 내고, 새로운 종교가 들어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것을 볼 수 있다. 즉 역병 가운데 새로운 종교가 나타나게 되었고, 우리의 역사는 그 신흥종교의 역사 가운데 있었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기존 종교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 무너졌다. 즉 전염병이 가져온 사회변동 가운데 기존의 종교는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위기를 맞이했고, 심지어 종말을 맞이하기도 했다.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이 가져온 사회변동 가운데서 한국교회는 기회가 아니라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 시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수세적인 입장에서 점점 사회와 대립되는, 거기에 더해 고립되어지는 형태가 되고 있다.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위치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한다. 스스로는 방역당국이나 현 정부에 의해서 이때에 탄압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현재 한국교회의 대응태세나, 이 사회가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자기 자리를 지키려 하는 기득권의 수세적 입장을 보게 된다. 즉 이때에 헌신적 희생이나 가진 것을 내려놓는 비움이 아니라 지키려는 입장이라면 분명 우리가 이 사회의 기득권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2. 한국교회의 현실

1) 교인 감소 경향

한국교회는 70년대와 80년대 급격한 성장을 경험하고, 90년대 중반부터 감소세로 들어섰다. 벌써 교인 감소에 대한 우려는 20년이 넘는 이야기가 되었고, 현재는 그 속도가 급격함을 체험하고 있다. 무엇보다 최근에 이르러서는 각 교단이 교인 감소를 보고하고 있다. 보통 교단의 교인수는 재적교인을 기준으로 하기에 항상 부풀려지게 마련이었는데, 최근에는 이 숫자가 줄어들었음을 보고하고 있다.

기독매체인 뉴스앤조이는 이러한 통계를 정리하여 기사화했다.³⁾ 바로 각 교단이 총회를 마친 2020년 10월의 기사이다. 기사는 한국교회 주요교단인 예장합동, 예장통합, 감리회, 예장고신, 기독성결, 기독장로 등 6개 교단의 교인통계를 정리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2011년 이후 8년 동안 이 6개 교단에서만 139만 명의 교인이 줄어들었다. 심지어 전년도인 2018년과 비교해 볼 때 이 6개 교단에서 17만 명이 줄어들었다. 이는 실제적인 조사가 아니라 각 교회가 보고한 교인 숫자의 교단별 취합이다. 즉 자진해서 교회별 재적 인원내 대한 것인데 이것이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각 교단별로 보면 예장합동은 299만 명에서 256만으로 43만 8천 명 정도가 줄어들었고 비율로 하면 14.6%가 감소했다. 그리고 예장통합은 285만 명에서 250만으로 34만 5천 명(12%)이 줄었고, 감리회는 158만에서 128만으로 29만 8천 명(18.8%)이 줄었다. 예장고신은 48만 명에서 41만 명으로 7만 명(14.5%)이 줄었고, 기독성결은 59만에서 43만으로 15만 9천 명(27%)이 줄었고, 기독장로는 30만에서 22만으로 약 8만 7천 명(28%) 정도가 줄었다. 6개 교단의 감소를 보면 예장합동이 숫자로는 가장 많이 줄어들었고, 비율로 하면 기독장로가 가장 많이 줄어들었다.

6개 교단을 합쳐서 보면 8년 동안 8,806,053명에서 7,412,150명으로 139만 명이 감소했다. 이는 비율로 하면 약 14%가 줄어든 수치이다. 위의 6개 교단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건전한 교단들로 다른 교단들에 비해 더 줄어들어야 할 이유는 특별히 없다고 본다. 오히려 다른 교단들에 비해 비교적 성장에 있어서 앞섰던 교단들이다. 그런데 이 교단들이 이렇게 큰 폭의 감소를 보고하고 있다면 다른 교단은 그 감소폭이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보면 적어도 이 기간 동안 14% 이상의 감소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앞으로 이런 추세가 유지된다고 한다면 20년만 지나도 한국교회의 교인수는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다.

2) 코로나19 이후의 한국교회의 상황

교회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한 지 벌써 1년이 넘었다. 2020년 2월부터 시작된 비대면 예배, 내

3) <http://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1533> '예장합동·통합·고신·기장·감리회·기성 등 주요 교단 교인 17만 빠져...2011년 이후 139만 이탈'

지는 온라인 예배는 이제 교회의 문화로 정착되었다. 교인들 역시 이제는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지고 있다. 현재 방역단계에서 교회는 좌석의 20%까지 참석이 가능하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20%를 채우는 것이 쉽지 않다. 온라인 예배가 전면적으로 드러지다 좌석 대비 20%의 대면예배가 허용되던 작년 5월 경에는 교인들이 정해진 인원을 넘어서 올까 싶어서 좌석예약제를 실시했었다.⁴⁾ 그러나 얼마 안 가 이런 제도가 슬그머니 없어졌다. 기대와는 달리 교인들이 대면예배에 참석하려는 의지가 없었다. 20%를 넘을까봐 걱정이었는데, 지금은 20%를 못 채우고 있다.

2021년 1월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21세기교회연구소와 한국교회탐구센터는 공동으로 청년의식 조사를 실시했다.⁵⁾ 이 조사에서 상당히 눈에 띈 자료는 10년 후 신앙에 대한 질문이었다. 이 질문에 기독교 청년 중 53%만이 '기독교 신앙도 유지하고 교회도 잘 나갈 것 같다'고 대답했다. 약 40%는 '기독교 신앙은 유지하지만 교회 나가지 않을 것 같다'고 응답했다. 심지어 7%는 '기독교 신앙을 버릴 것 같다'고 응답했다. 19-39세의 청년에 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들 중 약 절반 정도가 교회를 나가지 않거나 신앙 자체를 버릴 것이라고 대답했다는 것은 상당히 충격적이다. 충실히 나가고자 해도 교회 출석이 줄어들 수 있는 것인데 벌써 마음에서 안 나가고자 한다면 그 비율은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교인들의 참여가 이렇게 불투명하게 되었는데, 더 큰 문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교회에 대한 인식이 심하게 나빠졌다는 점이다. 2020년 1월 기독교윤리실천운동에서는 '2020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조사'⁶⁾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민의 32%가 한국교회를 신뢰한다고 대답을 했고, 64%는 신뢰하지 않는다고 대답을 했다. 2020년 1월 말부터 코로나19의 위험이 감지되고, 2월에 한국사회에서 코로나19의 위기가 시작되었으므로 이 조사는 코로나19 이전의 마지막 신뢰도 조사가 되었다. 2021년 목회데이터연구소에서는 동일한 질문을 국민들을 상대로 했다.⁷⁾ 이 조사에서는 국민의 21%만이 한국교회를 신뢰한다고 대답했고, 부정 응답은 무려 76%에 달했다. 이 두 조사가 비교될 수 있는 것은 기윤실의 조사 역시 목회데이터연구소에서 실행했기 때문에 주체가 같았기 때문이다. 비교를 위해서 동일한 질문을 1년의 시차를 두고,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하게 되었는데, 신뢰한다는 대답은 11%가 줄어들었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대답이 12% 늘어나게 되었다.

신뢰도는 보통 호감도와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결국 신뢰도가 그 동안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코로나19 상황에서 교회의 대처가 미흡한 면이 있어서 아주 많이 악화 되었다. 특히 코로나19 1차 유행에서 신천지, 2차 유행에서는 사랑제일교회, 3차 유행에서는 BJT열방센터와 IM선교회가 중심으로 회자되면서 교회의 이미지를 많이 깎아 먹었다.

4) <https://www.news1.kr/articles/?3924080> "거리두기" 지킨 황금연휴 주일예배...사전예약에 1m 띄어 앉아
 5)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21세기교회연구소 / 한국교회탐구센터 / 목회데이터연구소 '코로나 시대 기독교 청년들의 신앙 생활 탐구' 2020.01.27.
 6) 기윤실, '2020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조사', 2020.01 (일반국민 1,000명, 전화면접 조사, 2020.01.09-11)
 7) 목회데이터연구소, '코로나19 정부방역조치에 대한 일반국민 평가 조사' 2021.01 (일반 국민 1,000명, 온라인 조사, 2021.01.12-15)

더 심각한 것은 2020년 6월 초 목회데이터 연구소를 통해서 전해진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의 조사였다. 각 종교별 이미지 조사 결과였는데, 천주교인과 불교인의 경우는 ‘온화한’, ‘절제적인’ 같은 긍정적인 이미지가 주를 이루었는데, 개신교인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고 싶은’ 32%, ‘이중적인’ 30%, ‘사기꾼같은’ 29%로 아주 부정적으로 나타났다.⁸⁾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이 컸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앞으로 사람들이 교회를 찾기 어려울 것 같다. 그런데 더 걱정이 되는 것은 교인들 역시 교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기 어렵게 되었다. 특히 청년과 청소년들의 경우는 교인이라는 사실조차 숨겨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직장인들 역시 주말을 맞이할 때면 주일에 교회 가지 말라는 경고를 직접 받고 있는 실정이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교회를 오고자 하는, 그래서 신앙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지 의문이 든다.

3. 다가온 현실

2021년 1월 한 해를 전망하는 자리가 문화선교연구원과 목회사회학연구소, 그리고 목회데이터연구소 주최로 열렸다. 그 자리에 필자도 발표자로 함께 했다. 당시 필자가 내어놓은 키워드는 ‘복면성도’, ‘공간의 딜레마’, ‘공동체 리빌딩’이었다.⁹⁾ 복면성도라고 하는 것은 마스크를 쓴 성도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온라인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이제 교인들을 알 수 없게 되었다. 볼 수가 없으니 이들이 아직 교회의 교인으로 머물러 있는지, 현재의 신앙 상황은 어떤지, 사는 것은 어떤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온라인 상황이 지나가면 이들이 다시 돌아올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게 되었다. 과연 2020년 이전에 있었던 역동적인 주일풍경이 다시 찾아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게 되었다.

공간의 딜레마라고 하는 것은 좌석 대비 교인들이 20%, 30% 정도만 참석하고 있는데 공간이 그 쓸모에 한계를 갖게 됨을 의미한다. 이제는 좌석을 다 채울 일도 없을 것 같고, 온라인이 주를 이루다 보니 공간 자체도 큰 의미가 없게 되었다. 그렇다고 자기 공간이 없이 빌려서 쓰자니 이제는 방역문제로 인해서 남의 공간을 함께 쓰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래서 공간의 딜레마가 있다. 이제는 교회에 공간이 있어도 한계가 있고, 없어도 문제가 되었다.

공동체 리빌딩은 이제는 온라인 상에서 조회수와 구독자수로 만나게 되는 교인들과 함께 공동체를 꾸려야 함을 의미한다. 또 실제에는 없지만 유튜브나 온라인 상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함을 뜻한다. 과연 우리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이전과 같이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들로 정의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든다.

이와같이 교회는 새로운 변화를 마주하고 있다.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모두 질문 앞에 서게 되었다. 그 어느 것도 확실한 것은 없다는 것이 가장 확실한 사실이다. 한국교회가 마주한 가장 확실한 미래는 먼저 유튜브라는 온라인 공간이 새로운 선교지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8) 목회데이터연구소, 『2020 통계로 보는 한국 사회 그리고 한국 교회』 (서울: 목회데이터연구소, 2021) 63.
 9) '2021 문화선교트렌드' 2021.1.7. <https://www.cricum.com/53/?idx=222>, 기사로는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75459> '위드코로나 시대와 목회 리빌딩'

유튜브는 기존 교회의 지형과 비교할 때 전혀 새로운 영역이다. 그런데 이곳에 한국교회는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갑자기 밀려 들어갔다. 이것은 한국교회의 특별함을 잘 보여준다. 스마트폰 보급률이 90%가 넘는 대한민국, 인터넷 인프라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잘 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장점과 유연성과 합리성을 갖춘 한국교회의 장점이 결합하여 나타난 것이 예배 생중계였다. 개인 경험을 좀 이야기하면, 현재 출석 중인 교회는 코로나 이전 약 30명 정도의 출석교인이 있던 작은교회이다. 교회의 시설이라고 할 것도 없고, 교회당 역시 지하에 작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상황이 닥쳐서 온라인 예배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그러자 담임목사는 교육전도사 한 명과 함께 핸드폰을 이용해서 예배를 생중계했다. 정말 별다른 장치 없이 탁자 위에 삼각대를 놓고, 그 위에 스마트폰을 얹어서 녹화 및 생중계를 한 번에 이루어냈다. 교인들도 빠르게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에 참여했고, 교회는 별다른 불편함이 없이 온라인 시대를 열었다. 아마 이러한 교회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강제적이지만, 큰 어려움 없이 바로 온라인 시대로 옮겨 온 것이다.

유튜브는 영상을 옮겨가는 매체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가상현실 세계이기도 하다.¹⁰⁾ 수많은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유튜브에 관련된 콘텐츠를 올리고, 그를 중심으로 구독과 좋아요, 조회수 등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다. 그곳에서는 오프라인의 교회들과는 다른 문법이 작동한다. 2020년 6월 목회데이터연구소에서는 한국교회 유튜브 누적 조회수를 조사해서 발표했다.¹¹⁾ 이에 따르면 한국교회에서 처음으로 누적 조회수가 1억 뷰가 넘는 교회가 나왔다. 2위를 차지한 교회는 4.5 천만 뷰를 기록했는데, 이에 비하면 정말 탁월한 1위라고 할 수 있다. 1억 뷰를 넘은 교회는 한성교회로 예상합동에 속해 있다. 이 발표가 나기까지는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교회였다. 실제적으로 대형교회라고 할 수 없는 교회이다. 그런데 여타 한국의 대형교회들을 제치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높은 조회수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한성교회가 유튜브에서 놀라운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이 교회의 찬양인도자 때문이었다. 그가 인도하는 금요성령집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보고 있다. 심지어 한 찬양 영상은 1천만 뷰를 훌쩍 넘기고 있다. 공개된 자료에는 1위를 한 한성교회만 교회명이 나오고, 다른 교회들은 그냥 교회명 없이 순위와 누적 조회수만 공개되었다. 개인적으로는 목회데이터연구소의 자문위원 자격으로 10위까지의 교회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놀라웠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대형교회는 이 순위 안에 들어 있지 않았다. 즉 오프라인의 대형교회와 유튜브 상의 대형교회는 전혀 달랐다.

이외에도 김동호 목사의 '날마다 기막힌 새벽'에 매일 올리는 설교는 5만 명 이상이 보고 있고, 그 영상이 올라오는 채널에는 17.8만 명이 구독자로 속해 있다. 또는 한 전도사의 일상을 보여주는 '현이의 일상'이라는 채널에는 구독자가 12.7만 명이나 된다. 전 국민일보 기자였던 이태형이 운영하는 기록문화연구소 채널에는 8만 명의 구독자가 있다. 이러한 콘텐츠들은 교회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다. 즉 오프라인의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여 유튜브에 공동체를 형성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채널에 대한 충성도는 오프라인의 교인들이 그 교회에 하는 충성

10) 김태룡, "4차 산업혁명 시대, 성서 스토리텔링 VR콘텐츠의 효용성과 향후과제: <Jesus VR>을 중심으로" 『생명과말씀』 29 (2021): 192-223. 196f.

11) 목회데이터연구소, 『2020 통계로 보는 한국 사회 그리고 한국 교회』 (서울: 목회데이터연구소, 2021) 183.

도보다 더 높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이제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교회라는 개념을 새롭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유튜브라는 새로운 공간에서 같은 비전으로 모이고 있는 그들을 우리는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있다. 과연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교회를 ‘성도의 교제’, 즉 믿는 이들의 공동체로 이야기할 때 새롭게 우리에게 열려진 이 온라인 공간에서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지 않을 이유가 있는가의 문제가 남는다.

역사를 보면 교회는 새로운 상황에서 항상 그 형태를 움직여 갔다. 왕국이 정착되며 이스라엘은 성막에서 견고한 성전을 세우고, 중앙집권의 교권 형태를 만들었다. 이스라엘 전국의 제단들을 없애고, 지방의 종교기관들을 다 정리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하고 포로기로 접어들면서는 회당제도가 생겼다. 이스라엘의 중심점이었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을 찾아갈 수 없었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반경 1km 안에 회당을 세웠다. 유대인 남성 10명이면 회당 공동체를 설립할 수 있었다. 그들은 매 안식일마다 모여 말씀을 나누었다. 거기에는 제사장도 제사도 없었지만, 말씀이 중심을 이루며 새로운 종교형태가 되었다. 그곳에서는 유대 남성이면 누구나 말씀 두루마리를 가져다 앞에서 읽고 해석하는, 성전이였다면 상상도 못할 일을 할 수 있었다. 이로써 유대인들은 모두가 종교적 참여를 이룰 수 있었다. 이후 예루살렘으로 귀향하고 성전을 재건하지만, 이전과 같이 성전을 제외한 지방의 모든 종교기관을 없애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¹²⁾ 오히려 성전과 회당은 공존했고, 성전이 AD 70년을 기준으로 사라진 것과 대조적으로 회당은 아직도 세계 각처에서 그 명목을 이어가고 있다.¹³⁾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교회는 다시 그 형태를 변화시킨다. 바울은 당시 이방지역에서 교회를 세워갔다. 중동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기독교는 이제 바울의 이방전도 덕에 소아시아를 지나 그리스와 로마까지 그 영역을 넓혀 갔다. 이렇게 지역이 넓어지면서 교회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하다 이제 그 지역의 토착민들을 중심으로 하게 되었다. 교회가 이렇게 글로벌화 되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 이를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한다. 바울은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복음으로 묶어가며, 유대의 율법을 버린다. 당시 그들이 이해했던 세계 안에서 모든 이들에게 적용 가능한 복음의 기준은 ‘자유’라고 선언한다.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든다. 그 핵심은 복음이 주는 자유이다.¹⁴⁾ 이 기준은 유대교와의 결별이었고, 유대화된 기독교와도 헤어지는 계기가 된다. 그러나 이 변화로 말미암아 기독교는 이스라엘 땅과 유대인들의 테두리를 넘어 세계의 종교가 된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 역시 새로운 교회를 만들었다. 사제 중심의 하이라키의 교회를 성도들의 공동체로 변화시켰다. 라틴어 대신 각국의 언어가 예배 가운데 들어왔고, 말씀이 그 중심을 이루게 되었다.

12) 조경미, “스룹바벨 성전 재건의 함의. 학개서를 중심으로” 『생명과말씀』 28 (2020): 323-356. 332f. 성전 재건의 배경 및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13) 조성돈, “에스라의 성전: 예배 회복에 있어 성전 전통과 회당 전통의 공존”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에스라서와 민족의 회복』 (서울: 킹덤북스, 2020)
14) 조성돈 “복음이 주는 자유, ‘첫날’” <https://cemk.org/20907/>

이와같이 교회는 정해진 틀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시대와 대화하며, 시대의 요청에 응답해 왔다. 이런 변화가 없었다면 성전도, 회당도, 교회도, 개신교회도 나타날 수 없었을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 것이다.¹⁵⁾

현재 우리는 앞당겨진 미래를 살고 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세계는 빠르게 그 변화의 속도를 올리고 있다. 이제 이 시대는 신인류인 ‘포노 사피엔스’¹⁶⁾가 유튜브를 넘어 새로운 세계인 ‘메타버스’¹⁷⁾에서 살고 있는 상황이다. 교회는 시대의 변화에 벼랑 끝으로 몰려 있다. 변하지 않고는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변해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다. 그 누구도 이 시대를 살아보지 못했고, 이렇게 빨리 변하게 될지 예상할 수 없었기에 정답을 줄 수도 없다. 이제 우리 모두의 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변화에 새로운 교회를 제시하고, 만들어 가야 한다. 이에 근원적으로는 교회론의 변화와 급변하는 기술과 개념들에 응답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게 되었다.

4. 한국교회 갱신의 방향

1) 성도 역량 강화

교회를 살펴볼 때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 갱신은 위에서 살펴본 회당제, 바울의 디아스포라 교회, 그리고 종교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갱신의 중요한 공통점은 회중이었다. 회당은 제사장 중심의 종교를 모든 유대인이 참여할 수 있는 종교로 만들었다. 바울의 디아스포라 교회는 유대의 관습을 깨어버리고 그 당시 모든 세계인이 참여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었다. 그리고 종교개혁은 신의 대리인을 자처하는 사제들에게서 신자들에게 교회를 돌려준 놀라운 일이었다. 오늘날도 갱신의 핵심은 평신도 중심의 교회로 돌이키는 것이다.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교인들은 마치 썰물처럼 교회를 빠져 나가고 있다. 무엇보다 젊은 층의 교회 이탈은 무서울 정도이다. 젊은 층이라고 해서 10대나 20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 세대는 이미 오래전부터 붙잡을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젊은 층이라고 하는 것은 40대까지이다. 좀 더 넓게 보면 50대까지도 많이 흔들리고 있다. 이들이 교회에서 버티지 못하고 교회에서 도망가고 있다. 좀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나는 이들이 교회에 붙어 있는 것이 신기해 보인다. 그렇게 상처받고 힘들어하면서도 교회라는 조직에 붙어 있는 것이 신기하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오히려 더 좋다는 이야기를 한다. 전에 한 30대 청년을 만났다. 그에게 온라인 예배로 인해서 신앙의 어려움은 없는지를 물었다. 그랬더니 오히려 더 좋단다. 장로가 대표기도 할 때 항상 정치 발언을 해서 시험에 들었는데, 그 부분은 뛰어넘을 수 있으니 시험에 안 들고 좋다고 한다. 좀 더 정확히 그의 말을 옮기면, 설교 듣고 축도 받으면 되니 심플하고, 더 은혜가 된다고 한다.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는 예배가 하나의 지뢰밭이다.

15) 송우룡, “선교적 교회로 전화의 필요성 연구” 『생명과말씀』 17 (2017): 99-136. 125f. 선교적 교회의 관점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16) 최재봉, 『포노 사피엔스』 (서울: 샘앤파커스 2019)

17) 김상균, 『메타버스』 (서울: 플랜디자인, 2020)

얼마 전 성도단체에서 초청을 받아 특강을 했다. 그때 내건 제목이 ‘성도봉기’였다. 사회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봉기가 일어났을 것이다. 솔직히 성도들에게 봉기하라고 했다. 그 이유는 이들이 교회를 등지고 사라지는 것보다는 이게 더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끝내는 신앙을 버리는 것보다는 이들이 들고일어나야 한다. 그래서 현재의 체제를 바꾸어야 한다.

현재의 교회구조를 바꾸어, 교회당 밖의 교회를 구축해야 한다. 주일 11시 예배당에서 모이는 이들만을 교인으로 볼 것이 아니라 교회당 밖에서 배회하고 있는 성도들도 신앙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20%를 넘어가는 불출석교인들에 대한 배려가 없으면, 그리고 세상에서 도피성을 마련하지 못하면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을 잃어갈 것이다. 더군다나 코로나19로 주일예배의 틀을 벗어나는 실험을 마친 이들이 얼마나 더 빠르게 교회를 빠져나갈지는 상상을 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제 이들이 찾아갈 수 있는 곳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의 형태는 소위 이야기하는 파라체치, 성경공부동아리, 기독교인의 친목모임, 봉사단체, 독서모임 등을 포함한다. 더 나아가서는 온라인 상의 모임들, 줌(Zoom)과 같은 도구를 통한 닫힌 모임뿐만 아니라 유튜브와 같은 공개된 모임까지를 포함한 형태들이다. 즉 주일설교로 메인 교인이 아니라 ‘믿는 이들의 공동체’, ‘성도의 교제’, ‘communio sanctorum’으로서의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 성도들 스스로가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2) 교회구조 갱신

그 동안 교회구조의 갱신을 이야기하면 보통 목회자들의 자성을 촉구했다. 그들의 막강한 권력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러나 요즘 교회구조의 갱신을 이야기한다면 목회자들의 기득권 포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교회 현장에서 목회자의 권한이 막강하고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들도 심각하다. 그러나 현재 한국교회는 목회자만의 문제만 아니라 장로를 포함한 성도들의 리더십도 문제다. 목회자들의 권한이 축소되면서, 그 빈자리가 성도들의 리더십으로 채워졌다. 예를 들어서 요즘 교회 후임자를 정하는데 있어서 퇴임하는 목회자가 전권으로 후임자를 정하는 교회는 드물게 되었다. 대신 청빙위원회가 마치 전문 CEO 뽑듯, 또는 경연대회 하듯이 뽑고 있다. 물론 그 이후에 교회의 헤게모니 다툼에 있어서 채용권자들의 권리주장이 적지 않다. 그래서 요즘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 리더십까지 갱신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목사, 장로로 대표할 수 있는 당회제도를 갱신해야 한다. 요즘처럼 30대 당대표, 40살의 대통령, 30-40대의 대기업 대표 등이 쏟아지고 있는 때에 60-70대가 교회 리더십을 독점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이미 사회에서는 40대 후반만 돼도 회사에서 은퇴를 생각해야 하는데, 교회에 오면 아이 취급을 당하는 현실은 말도 안 된다. 시대를 쫓아간다면 이제 교회 리더십의 나이를 낮추어야 한다. 적어도 교회 리더십의 썬클 안에 30대와 40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젊은 층에 친화적인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

하나 더 나아가간다면 현재의 교단 중심 교회구조를 포기해야 한다. 교인들에게 시험거리만 제공하고, 교회를 돕기보다는 통제하려고만 하는 현재의 교단은 자신들의 역할을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 교회가 위기에 처했는데 살 길을 제공하지 못하고, 정치적 선동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현재의 교단이나 연합기관은 개 교회의 인정도 못 받고, 무엇보다 교인들의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한다. 더군다나 온라인 공간 안으로 교회가 깊숙이 들어가면서, 이제 기존 체제는 약화 되었다. 심지어 온라인에서는 목회자라는 구별된 자격도 의미가 없어졌다. 누구라도 콘텐츠를 가지고 있다면, 조회수로서 자격을 증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곳에서 현재의 교단구조가 어느 때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결국 교회구조를 조정해야 한다. 지역교회에서는 나이에 따른 리더십 구조를 조정해야 한다. 빠르게 노령화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탈피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의사결정 구조뿐만 아니라 가치관에서도 교회가 젊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교단 중심의 교회구조 역시 조정이 되어야 한다. 점점 통제력을 잃어가는 교단체제가 오늘날 한국교회에 어떤 선한 것을 마련해 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

3) 공간중심의 교회개념의 해체

과거 어느 교회든 교회당 건축은 교회의 절대적 사명 중에 하나였다. 한국교회는 대부분 건축을 하기 위해 준비 중이거나, 건축을 하고 뒷감당을 하기 위해 노력 중이었다. 교회의 재정은 경상비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건축과 관련된 비용에 투입되었다. 그런데 교인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노령화가 되면서 건물이 유지가 안 된다. 더군다나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서 모임이 어려워지니 더욱 그러하다.

최근 작은교회의 어려움은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고, 중형교회 역시 어려움 가운데 있다. 약 4년 전 목회사회학연구소에서 ‘한국교회 마지노선 중형교회’라는 주제로 연구발표를 한 적이 있다. 그 조사에서 보면 구도심의 전통적인 중형교회들이 목회자 교체기를 겪으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 나온다. 몇 년 사이지만 그 동안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속화가 되고 있다. 결국 교회가 부흥하던 시기에 지어 놓았던 건물들이 애물단지가 된 곳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교회당, 수양관, 묘지 등 다양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는 건물을 유지할 수 있는 재정을 마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다.

요즘 한국교회에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는 교회병합이다. 부동산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교회들이 코로나 상황에서 버티지를 못하고 부동산을 중심으로 병합을 하는 것이다. 몇 가지 양태가 나타나는데, 먼저는 앞에서 이야기한 상황의 중형교회가 성장하는 공동체와 교회를 병합하는 형태이다. 둘째는 작은교회가 월세를 감당하지 못하고 폐교회 대신 교회병합으로 가는 것인데, 이는 작은교회들의 병합이나 작은교회가 큰 교회로 흡수병합되는 형태이다. 셋째는 병합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공동의 공간을 사용하는 플랫폼 형태의 교회구성이다.

즉 현재 한국교회는 기존의 부동산 중심의 교회를 벗어나고 있다. 코로나 상황이라는 특수한 형편에서 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이러한 흐름은 벌써 이전에 시작되었다. 더군다나 온라인으로 전환 되면서 건물은 더 의미가 없어졌다. 가상공간까지 포함한다면 이제 건물을 세우고, 그곳을 채우던 목회는 지나간 과거가 되고 말았다. 어떤 의미에서 이제 한국교회는 부동산이 아니라 공동체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될 수 있는 기회를 맞았다.

5. 나아가며

코로나19 이후의 교회'라는 한정된 틀에서 교회갱신을 이야기해 보았다. 현재 한국교회가 맞이하고 있는 위기를 직시하면, 이제 갱신은 생존의 문제이다. 어쩌면 기존에 우리가 바른 교회를 위한 갱신을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갱신하지 못한다면 살아남을 수도 없을 것이라는 위기감에 기반된 것이다. 코로나 19라는 팬데믹은 사회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키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 같다. 혹자는 이를 사회변동이라고 하고, 또 다른 이들은 더 크게 문명의 전환이라고까지 이야기한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 역시 커다란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중요한 점은 그 변화가 교회의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더 나아가서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맞을 수 있었으면 한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교회는 상당히 유연해져야 하고, 시대의 변화에 민감해야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풍조에 떠밀려 다녀서는 안 된다. 이런 쉽지 않은 전환점에서 순간순간이 주님의 도움으로 선한 선택이 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